

한국미학사진연구회 제1회 회원전



오프닝: 2026.09.05 13시 학술세미나

주제: 좋은 사진인데 왜 의미가 약할까?(사진기호학으로 배우는 읽고 말하는 방법)-참석자 전원 [사진기호학 실전 30개 핸드북] 제공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장

**FEATURED
ARTISTS**

강환산 | 김상희 | 김종욱 | 김주일 | 노국진 | 박진경 | 박철현 | 방극두 | 서순희
신연태 | 이상설 | 이수정 | 이재등 | 이현진 | 정기화 | 정현숙 | 지선규 | 최육희
채수창(전시 큐레이팅)

04-10
SEPTEMBER(9월) 2026
FROM 10:00 - 18:0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주관: 한국미학사진연구회



FOR MORE INFORMATION

010-7150-6767

@한국미학사진연구회

WWW.KAPR.KR

KOREAN AESTHETIC PHOTOGRAPHY RESEARCH SOCIETY



잔존

사라진 뒤에도 남아 있는 것들을 읽는 여덟 개의 장면

한국미학사진연구회 제 1 회 회원전 전자도록

2026.09.04-09.10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EXHIBITION INFORMATION

전시 정보

전시명	한국미학사진연구회 제 1 회 회원전 [잔존]
기간	2026.09.04-09.10 10:00-18:00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오프닝 특강	2026.09.05 13:00 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주최	한국미학사진연구회
전시 큐레이팅	채수창
공식 사이트	www.kapr.kr

참여 작가

강환산 | 김상희 | 김종욱 | 김주일 | 노국진 | 박진경 | 박철현 | 방극두 | 서순희 | 신연태 | 이상설 | 이수정 | 이재등 | 이현진 | 정기화 | 정현숙 | 지선규 | 최옥희 | 채수창

CONTENTS

차례

- 01 **한국미학사진연구회** 연구회 소개와 상설 강의
- 02 **잔존** 전시 주제 해설
- 03 **홍보물** 포스터·개막 특강·초대장
- 04 **전시 안내** 전시 가이드·도면·관람 동선
- 05 **여덟 개의 섹션** 설치 방식과 관람의 단서
- 06 **참여 작가** 작가 노트·전시 서문·작품
- 07 **기록과 크레딧** 영상·현장 기록·발행 정보

ARTIST INDEX

작가별 작품 구성

작가	참여 섹션	작품 수
강환산	07	2
김상희	02, 07	3
김종욱	04, 05	3
김주일	02, 03, 06, 07	5
노국진	02, 03, 07	4
박진경	02, 04	3
박철현	02	3
방극두	01, 05	3
서순희	03	2
신연태	02, 05, 06, 07	4
이상설	01, 05	3
이수정	01, 06, 07	3
이재등	06	3
이현진	05, 07	3
정기화	02, 03	3
정현숙	04, 05	3
지선규	03	2
최옥희	01, 02	3
채수창	01, 02, 07	3

01 RESEARCH SOCIETY

한국미학사진연구회

사진의 이론, 미학, 철학을 창작과 교육으로 이어 주는 연구 공동체

한국미학사진연구회는 사진의 이론적·미학적·철학적 연구, 사진 창작 방법론의 개발과 교육, 비평과 출판에 위해 운영되는 연구 공동체다. 사진을 기술 습득에 머물지 않고 보는 방식, 의미의 구조, 작가의 언어로 함께 다룬다.

정기 강의와 세미나, 작품 비평회, 포트폴리오 리뷰, 공동 전시를 이어 간다. 연구 성과는 강의 자료, 단행본, 온라인 아카이브로 정리한다. 회원의 작업은 개별 발표에 머물지 않고 서로 다른 사진이 한 공간에서 어떤 관계를 만드는지 실험한다.

[잔존]은 연구회의 첫 회원전이다. 작가별 구획 대신 색, 선, 어둠, 반사, 여백, 인물과 공간의 비율을 기준으로 작품을 다시 묶었다. 한 작가의 작업은 여러 섹션으로 흩어지고, 전자 도록에서 다시 작가별 묶음으로 돌아온다.

주요 활동

연구	사진미학·사진기호학·사진디자인·현대사진 담론·AI 생성
교육	정규 이론 강의·상설 기초 강의·특강·워크숍
비평	정기 사진비평회·포트폴리오 리뷰
창작	출사·공동 연구 프로젝트·전시
출판	강의 교재·연구 총서·계간지·전자 아카이브

PERMANENT CLASSES

상설 강의 안내

사진기초	매주 목요일 10:00-12:00 / 19:00-21:00
포토샵기초	매주 목요일 10:00-12:00 / 19:00-21:00
정규 이론 강의	월 1-2 회, 19:00-21:00
사진비평회	연 4 회
특강	사진디자인/미학/기호학 이론·작가 글쓰기·AI 이미지 생성
출사·전시·출판	일정 별도 공지

강의가 다루는 범위

사진의 본질과 인식, 화면의 형식과 조형 언어, 현대사진미학, 공간과 지각, 사진기호학, 비평 언어, AI 를 이용한 작가 글쓰기와 이미지 작업을 단계별로 다룬다.

문의 및 일정 확인 www.kapr.kr

02 EXHIBITION THEME

전시회 잔존

사라진 뒤에도 남아 있는 것들을 읽는 여덟 개의 장면

사라짐 이후의 상태

[잔존]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복원하는 전시가 아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의 눌림, 비가 마른 뒤 남은 얼룩, 빛이 지나간 벽의 퇴색, 어둠 속에서 늦게 드러나는 물체를 본다. 과거의 사건은 화면 밖에 있다. 사진에는 지금 남아 있는 표면과 간격이 있다.

흔적은 과거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다. 굵은 벽은 누가 언제 지나간 것인지 말하지 않고, 빈 의자는 방금 일어난 사람의 얼굴을 돌려주지 않는다. 정보가 빠진 자리에서 관객은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꺼낸다. 같은 사진 앞에서도 읽히는 시간은 달라진다.

작품들은 대상을 크게 외치지 않는다. 작은 붉은 점, 젖은 표면의 반사, 창을 자르는 검은 선, 먼 공간에 남은 인물 한 명이 화면의 무게를 바꾼다. 잔존은 남은 물건의 목록보다, 남은 것이 현재의 시선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가깝다.

THREE LAYERS

잔존을 읽는 세 개의 층

01 물질

굵힘, 퇴색, 반사, 그림자처럼 화면에 실제로 남아 있는 표면의 흔적

02 구조

반복, 간격, 경계, 프레임이 흩어진 흔적을 하나의 시각 질서로 묶는 방식

03 해석

관객의 기억과 경험이 작품 속 부재를 각자의 서사로 다시 읽는 과정

세 층은 차례대로 끝나지 않는다. 표면의 얼룩을 보다가 화면의 반복을 읽고, 다시 개인의 경험으로 돌아간다. 관객의 시선이 오갈 때 작품은 하나의 설명에 고정되지 않는다.

INSTALLATION GRAMMAR

사진의 높이가 바뀌면 읽는 방식도 달라진다

입구의 사진은 천장에서 내려온다. 관객은 액자 앞에서 멈추는 대신 사진 사이를 통과한다. 얇은 인화지의 앞뒤가 보이고, 사람의 이동으로 색면이 겹친다.

바닥 사진 앞에서는 목과 허리가 내려간다. 작품 위를 지나가거나 옆으로 비켜 서는 동작이 생긴다. 벽에 걸린 사진은 시선을 다시 세우고, 두 줄로 놓인 어두운 화면은 앞면과 맞은편 면의 기억을 이어 붙인다.

영상은 정지 사진 사이에서 빠져나간 움직임과 소리를 되돌린다. 천장, 바닥, 벽, 영상으로 매체의 높이를 바꾼 이유는 장식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관객의 몸이 읽기의 속도와 방향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다.

작가별 구획을 나눈 대신

전시장에서는 작가 이름보다 화면의 관계를 앞에 놓았다. 한 사진의 수평선이 다른 사진의 문턱으로 돌아오고, 검은 격자가 반대편의 나뭇가지와 만난다. 서로 다른 작가의 사진이 색, 선, 비율, 빈 면을 건네 받는다. 전자 도록은 이 시퀀스를 다시 작가별로 묶어, 전시장과 다른 읽기 순서를 제공한다.

한국미학사진연구회 회원 전시회 [잔존]

오프닝 특강

좋은 사진인데, 왜 의미가 약할까?

사진 기호학으로 배우는 읽고 말하는 방법

일시	2026.09.05(토) 13시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참석	현대사진미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비용	무료: 참석자 전원 [사진기호학 실전 30개 핸드북] 제공
강사	채수창
주최	한국미학사진연구회

한국미학사진연구회 잔존 공식 사이트 ▶▶



INVITATION

초대장

2026.09.04~10

초대합니다

한국미학사진연구회 회원 사진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오프닝 특강: 2026.09.05 13시

주제: 좋은 사진인데, 왜 의미가 약할까? - 사진기호학으로 배우는 읽고 말하는 방법(참석자 전원 [사진기호학 실전 30개 방법론 핸드북] 증정)



04 EXHIBITION GUIDE

전시 가이드 1 장

EXHIBITION GUIDE

한국미학사진연구회 전시회 《잔존》

사라진 뒤에도 남아 있는 것들을 읽는 여덟 개의 장면



전시의 의미

《잔존》은 사라짐 이후의 상태를 바라본다. 사람이 떠난 자리의 놀림, 빛이 지나간 표면, 어둠 속에서 늦게 드러나는 사물, 자연이 남긴 최소한의 선과 색 등. 전시 작품들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복원하지 않는다. 지금 눈앞에 남은 흔적이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순간을 보여준다.

잔존을 읽는 세 개의 층

01 물질 굽힘·퇴색·반사·그림자처럼 화면에 실제로 남아 있는 표면의 흔적	02 구조 반복·간격·경계·프레임이 흔적을 하나의 시각 질서로 묶는 방식	03 해석 관객의 기억과 경험이 작품 속 부재를 각자의 서사로 다시 읽는 과정
---	--	---

여덟 개의 섹션

01 색채가 발언하는 공간·천장 설치 공중에 놓인 색은 벽의 배경에서 벗어나 독립된 목소리를 얻는다. 관객의 움직임과 시선에 따라 색의 관계가 계속 달라진다.	05 이중 레이어·경계 반사와 투과, 안과 밖, 실재와 이미지가 한 화면에서 겹친다. 경계는 둘을 나누는 선이 아니라 의미가 흔들리는 면이 된다.
02 구조적 잔존·바닥 설치 선, 균열, 배열, 건축의 조각이 사라진 사건보다 오래 남는다. 내려다보는 시선은 흔적을 도면처럼 읽게 한다.	06 자연의 미니멀리즘 비어 있는 면과 드문 요소, 멀어진 간격에 주목한다. 자연의 장면은 설명을 줄이고 남아 있는 리듬만 보여준다.
03 자연의 미니멀리즘 가지 하나, 수면의 선, 작은 색 면, 자연에서 떨어진 최소 단위가 계절과 시간의 흔적을 조용히 드러낸다.	07 공간과 인간의 척도·바닥 설치 인물과 공간의 크기 차이가 장소의 압력과 인간의 위치를 드러낸다. 바닥으로 내려온 사진 앞에서 관객의 몸도 하나의 척도가 된다.
04 어둠 속의 사물 어둠은 사물을 지우지 않고 일부만 남긴다. 낮은 빛에 걸린 윤곽과 표면이 익숙한 대상을 낯선 징후로 바꾼다.	08 잔존의 시간·영상 정지 사진 사이에 흐르는 빛, 움직임, 소리를 더한다. 끊어진 장면들은 반복과 지속 속에서 다른 시간의 흔적을 만든다.

FLOOR PLAN

전시장 도면과 관람 순서

입구는 섹션 1 과 섹션 8 사이에 있다. 관람 순서는 1 에서 8 로 이어진다.



관람 순서

01 색채가 발언하는 공간	02 구조적 잔존	03 자연의 미니멀리즘	04 어둠 속의 사물
05 이중 레이어와 경계	06 자연의 미니멀리즘	07 공간과 인간의 척도	08 잔존의 시간

05 EIGHT SECTIONS

여덟 개의 섹션

작품 이미지는 작가별 페이지에 배치

섹션	설치	읽기의 중심
01 색채가 발언하는 공간	천장 설치	색면 사이의 거리 / 앞면과 뒷면의 변화 / 관객의 이동으로 생기는 겹침
02 구조적 잔존	바닥 설치	균열과 절단선 / 반복되는 구조 / 사진 사이에 남긴 바닥 면
03 자연의 미니멀리즘	벽면 설치	드문 요소 / 넓은 빈 면 / 느린 수평선
04 어둠 속의 사물	벽면 2 단 설치	낮은 빛 / 잘린 윤곽 / 검은 면 안의 작은 표식
05 이중 레이어와 경계	벽면 2 단 설치	반사와 투과 / 겹친 프레임 / 색과 대상의 어긋남
06 자연의 미니멀리즘	벽면 설치	반복되는 작은 규격 / 작품군 사이의 긴 여백 / 마지막 큰 화면
07 공간과 인간의 척도	바닥 설치	인물과 빈 공간의 비율 / 멀어진 시점 / 보행으로 달라지는 거리
08 잔존의 시간	영상	반복되는 장면 / 정지 화면 사이의 움직임 / 낮은 소리와 공백

01

색채가 발언하는 공간

천장 설치

공중에 놓인 색은 벽의 배경에서 벗어나 독립된 목소리를 얻는다. 관객이 사진 사이를 지나면 색의 앞뒤, 겹침, 간격이 계속 달라진다.

관람의 단서

- 01 색면 사이의 거리
- 02 앞면과 뒷면의 변화
- 03 관객의 이동으로 생기는 겹침

02

구조적 잔존

바닥 설치

선, 균열, 배열, 건축의 조각은 사건이 지나간 뒤에도 오래 남는다. 내려다보는 시선은 흔적을 도면처럼 읽고, 관객의 발은 배열의 일부가 된다.

관람의 단서

- 01 균열과 절단선
- 02 반복되는 구조
- 03 사진 사이에 남긴 바닥 면

03

자연의 미니멀리즘

벽면 설치

가지 하나, 수면의 선, 작은 색 면. 자연에서 떨어진 최소 단위가 계절과 시간의 흔적을 드러낸다. 설명보다 여백과 간격이 오래 남는다.

관람의 단서

- 01 드문 요소
- 02 넓은 빈 면
- 03 느린 수평선

04

어둠 속의 사물

벽면 2 단 설치

어둠은 사물을 없애지 않고 일부만 남긴다. 낮은 빛에 걸린 윤곽, 문턱, 격자, 표면의 작은 반사가 익숙한 대상을 낯선 징후로 바꾼다.

관람의 단서

- 01 낮은 빛
- 02 잘린 윤곽
- 03 검은 면 안의 작은 표식

05

이중 레이어와 경계

벽면 2 단 설치

반사와 투과, 안과 밖, 실재와 이미지가 한 화면에 겹친다. 경계는 둘을 나누는 선보다, 의미가 흔들리는 면에 가깝다.

관람의 단서

- 01 반사와 투과
- 02 겹친 프레임
- 03 색과 대상의 어긋남

06

자연의 미니멀리즘

벽면 설치

비어 있는 면과 떨어진 간격에 시선을 둔다. 자연의 장면은 정보를 줄이고, 남아 있는 리듬만 보여준다. 작은 작품군과 긴 여백이 시선의 속도를 조절한다.

관람의 단서

- 01 반복되는 작은 규격
- 02 작품군 사이의 긴 여백
- 03 마지막 큰 화면

07

공간과 인간의 척도

바닥 설치

인물과 공간의 크기 차이가 장소의 압력과 인간의 위치를 드러낸다. 바닥으로 내려온 사진 앞에서 관객의 몸도 하나의 척도로 들어온다.

관람의 단서

- 01 인물과 빈 공간의 비율
- 02 멀어진 시점
- 03 보행으로 달라지는 거리

08

잔존의 시간

영상

정지 사진 사이에 흐르는 빛, 움직임, 소리를 더한다. 끊어진 장면은 반복과 지속 속에서 다른 시간의 흔적을 만든다.

관람의 단서

- 01 반복되는 장면
- 02 정지 화면 사이의 움직임
- 03 낮은 소리와 공백

06 ARTISTS

참여 작가

강환산 | 김상희 | 김종옥 | 김주일 | 노국진 | 박진경 | 박철현 | 방극두 | 서순희 |
신연태 | 이상설 | 이수정 | 이재등 | 이현진 | 정기화 | 정현숙 | 지선규 | 최옥희 |
채수창

ARTIST 01

강환산

참여 섹션 07 공간과 인간의 척도

수록 작품 2 점

작가 노트 <바다의 기억>

바다는 떠난 것과 돌아온 것의 흔적을 오래 품고 있는 공간이다.

내가 바라본 소래의 바다는 단순히 배가 머물다 가는 장소가 아니라, 수많은 어부들의 삶과 시간이 잠시 머무는 기억의 공간이었다.

이 작품은 소래 어선들이 조업을 마치고 돌아와 잠시 정박하는 임시 잔교의 모습을 드론으로 내려다보며 기록한 것이다.

바다 위를 가르며 움직이던 어선들은 고기를 잡는 동안 자신만의 궤적을 남기고, 귀항하는 순간에는 그 흔적을 물결 속에 흩어 놓는다.

화면에 보이는 배와 잔교, 그리고 배가 지나간 뒤 길게 남겨진 물살은 서로 다른 시간의 층위를 만든다.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배가 만들어낸 하얀 포말은 잠시 존재하다 사라지지만, 그 순간만큼은 바다 위에 선명한 흔적으로 남는다.

나는 그 흔적에서 '잔존'의 의미를 바라본다.

이곳은 어선들의 영원한 정박지가 아니다.

조업을 마친 배들은 잠시 이곳에 머물며 숨을 고르고, 다시 본래의 정박지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잔교는 머무름과 떠남 사이에 놓인 하나의 경계이자, 삶의 한 장면이 잠시 정지하는 장소처럼 느껴진다.

배가 떠난 뒤에도 물결은 한동안 그 움직임을 기억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흔적마저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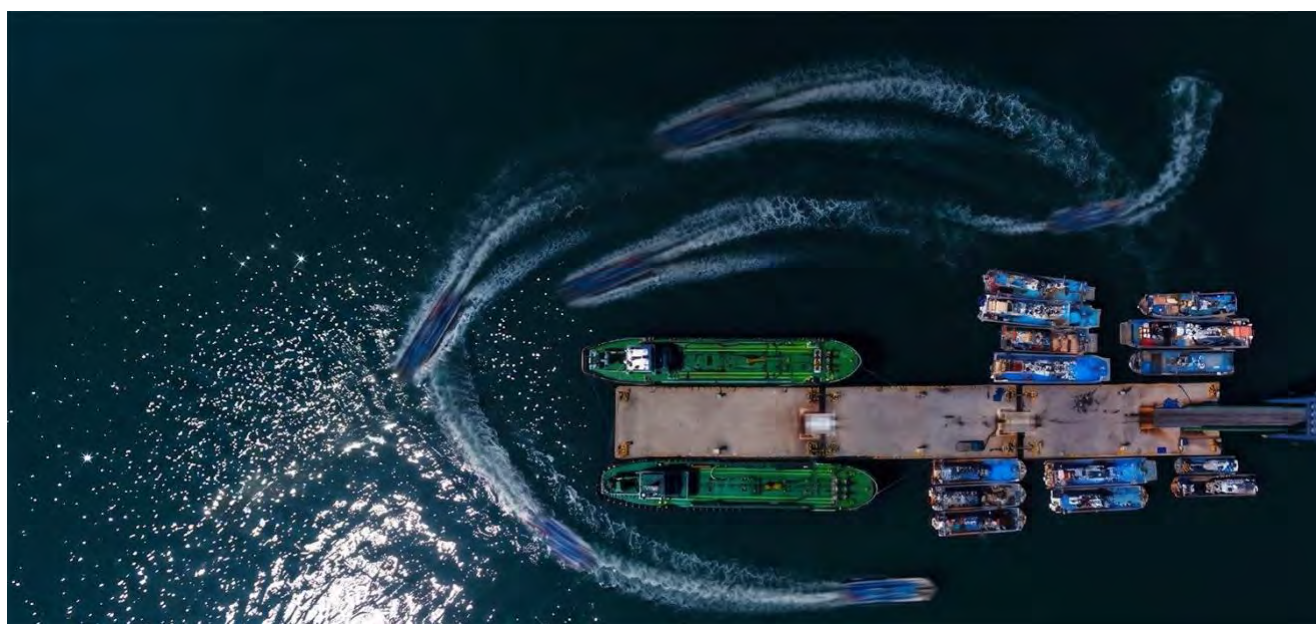
드론의 시선으로 내려다본 바다는 인간의 눈으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질서를 보여준다.

나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동과 귀환, 그리고 반복되는 시간을 읽는다.

<바다의 기억>은 결국 사라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떠났기에 남겨지고, 돌아왔기에 다시 떠나야 하는 배들처럼 우리의 삶 또한 끊임없이 머물고 떠난다. 내가 사진으로 붙잡고 싶었던 것은 배 자체가 아니라, 배가 떠난 뒤에도 바다에 잠시 남아 있는 삶의 흔적과 그 흔적을 기억하는 바다의 시간이다.

작가 약력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예술지도사 자격 취득
재능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과 졸업
한국미학사진연구회 운영위원
한국미학사진연구회 학술지 <시선의 문법> 편집장
대한민국국제포토편제스티벌 [현실 그 너머] 전시(예술의 전당)
No War 국제 전시 2026-2027 (세종/제주/폴란드 전시 및 예정)



[바다의 기억]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107x229 cm]



[잔상의 언어]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0x45 cm]]

ARTIST 02

김상희

참여 섹션 02 구조적 잔존 / 07 공간과 인간의 척도

수록 작품 3 점

작가 노트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사물과 풍경은 모습을 바꾸거나 희미해지지만, 그 자리에 새겨진 흔적과 잔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스쳐 지나가는 빛과 바람,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온 피사체들은 눈에 보이는 형태 너머의 시간을 품고 있다.

렌즈 너머로 마주한 순간들은 이미 과거가 되었지만,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순간을 포착하는 작업인 동시에, 사라져가는 것들의 흔적을 추적하는 과정이다. 세상의 모든 피사체는 빛을 머금었다가 이내 놓아주지만, 그 순간이 남긴 아련한 잔상은 마음속 깊이 묵직하게 가라앉는다.

이른 아침, 차가운 강가에서 하염없이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소란스럽던 마음은 이내 조용히 가라앉고 깊은 평온이 찾아왔다. 찰나에 사라져버릴 듯 부유하는 물안개와 마음속 깊은 곳에 묵직하고 따뜻한 잔상으로 남아 나를 살그머니 다독여주었다.

그 안정의 기억을 따라 걷던 길에서 마주한 또 다른 순간은 어둠 속의 빛이었다. 미술관의 육중한 건물과 건물 사이, 깊고 차가운 어둠을 뚫고 강렬하게 스며드는 한 줄기 빛. 그 빛은 마치 거친 삶의 한가운데서 찾아 헤매던 '밝은 길'처럼 다가왔다. 어둠이 깊을수록 그 사이로 비춰드는 빛은 더욱 명확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

나에게 사진이란 사라져가는 풍경의 기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밝혀주었던 행복과 희망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남이섬 강가의 물안개와 미술관 틈새의 빛이 나에게 그러했듯, 이 프레임 속에 남겨진 빛의 어둠에도 작은 평안과 밝은 길잡이가 되어 잔존하기를 바란다.

작가 약력

2023.02 한양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반 수료

2024 제 11 회 헤라포토 총동문회 정기회원전 《공감》

2024 안산 국제포토편스티벌 전시

2025 안산 (사)환경사진작가협회 전시

2025 제 12 회 헤라포토 총동문회 정기회원전 《추억의 빛》

2025 안산 국제포토편스티벌 전시

2026 제2회 회화 사진전 《사진,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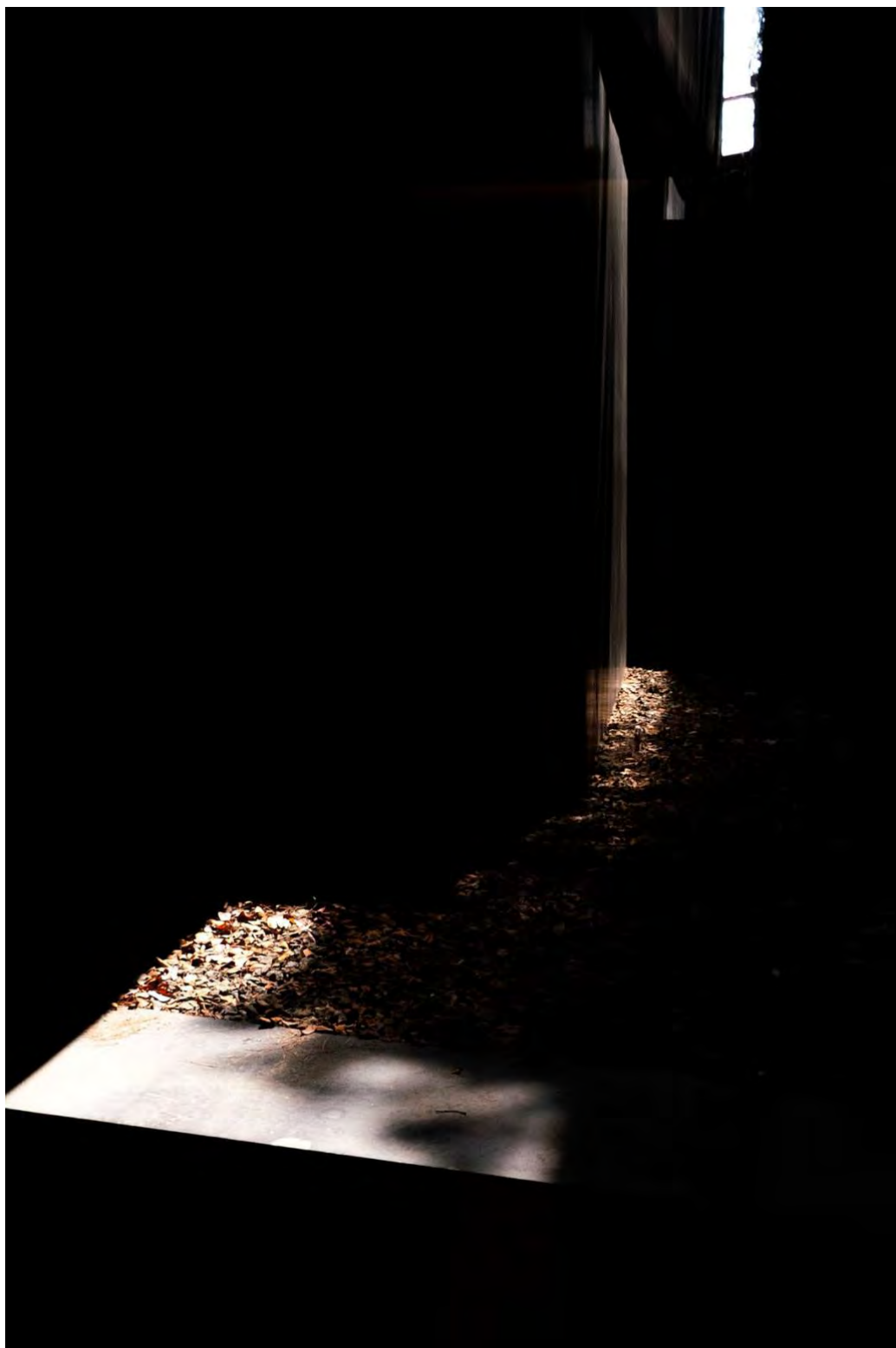
[빛의 잔흔]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0x45 cm]



[부서진 빛의 자리]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0x45 cm]



[어둠을 통과한 자리]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45x30 cm]

ARTIST 03

김종옥

참여 섹션 04 어둠 속의 사물 / 05 이중 레이어와 경계

수록 작품 3 점

작가 노트 <남은 빛의 시간>

빛이 스치고 간 자리를 오래 바라본다.

벽을 스치던 빛은 기울고, 바닥에 길게 놓였던 그림자는 조금씩 자리를 옮기고, 어둠 사이로 들어온 한 줄기의 빛, 계단위에 잠시 머문 밝은 면, 붉은 틈 사이로 새어나온 작은 흔적, 그것들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부터 이미 사라지고 있다. 나는 그 시간의 빛이 남긴 흔적을 사진안에 붙잡아 둔다.

나는 빛을 찍지만 빛을 기록하려는 건 아니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둠이 들어오고, 비어 있는 계단과 벽, 길게 이어지는 선들은 누군가 있었던 시간과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사이에 놓여있다. 사진의 빛은 그것을 설명 하기보다 그곳을 통과한 흔적으로 남는다.

나에게 잔존은 사라진 뒤에 남겨진 결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빛이 스치고 지나간 벽, 어둠으로 이어지는 계단, 사람이 지나간 뒤 잠시 남는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과정에서 지워지지 못한 시간을 의미한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빛이 머무는 순간에 관심이 갔다. 처음에는 벽과 바닥을 가르는 빛의 형태에, 시간이 지나면서 밝게 드러난 빛보다, 그것이 지나간 자리와 그 이후에 남겨지는 것들에 더 이끌리게 되었다. 어두운 면 사이로 스며드는 가느다란 선, 계단 끝에서 짧게 머물다 사라지는 밝은 면, 빛은 한 자리에 정지해 있는듯 보이지만 미세하게 이동하며 공간의 흐름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도 빛은 계속 움직인다 바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위치를 바꾸고, 한 사람이 프레임을 지나가면, 잠시 흔적을 남기고 곧 어둠속으로 스며든다.

나는 그 짧은 시간의 층위를 바라본다. 존재와 부재, 밝음과 어둠, 가시성과 비가시성 사이에 놓인 미세한 간극들을 담으려 한다.

내 사진의 어둠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은 더 선명해지고, 빛을 닿은 벽의 거친 표면과 계단의 선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때로는 공간의 깊이를 가르고, 때로는 사람보다 그림자가 더 오래 화면에 머문다.

그래서 난 빛자체를 기록하지 않는다. 빛이 지나가며 남긴 표면의 변화, 그 뒤에 남겨진 비어 있는 공간, 그리고 어둠속에서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시간의 흔적을 사진안에 담으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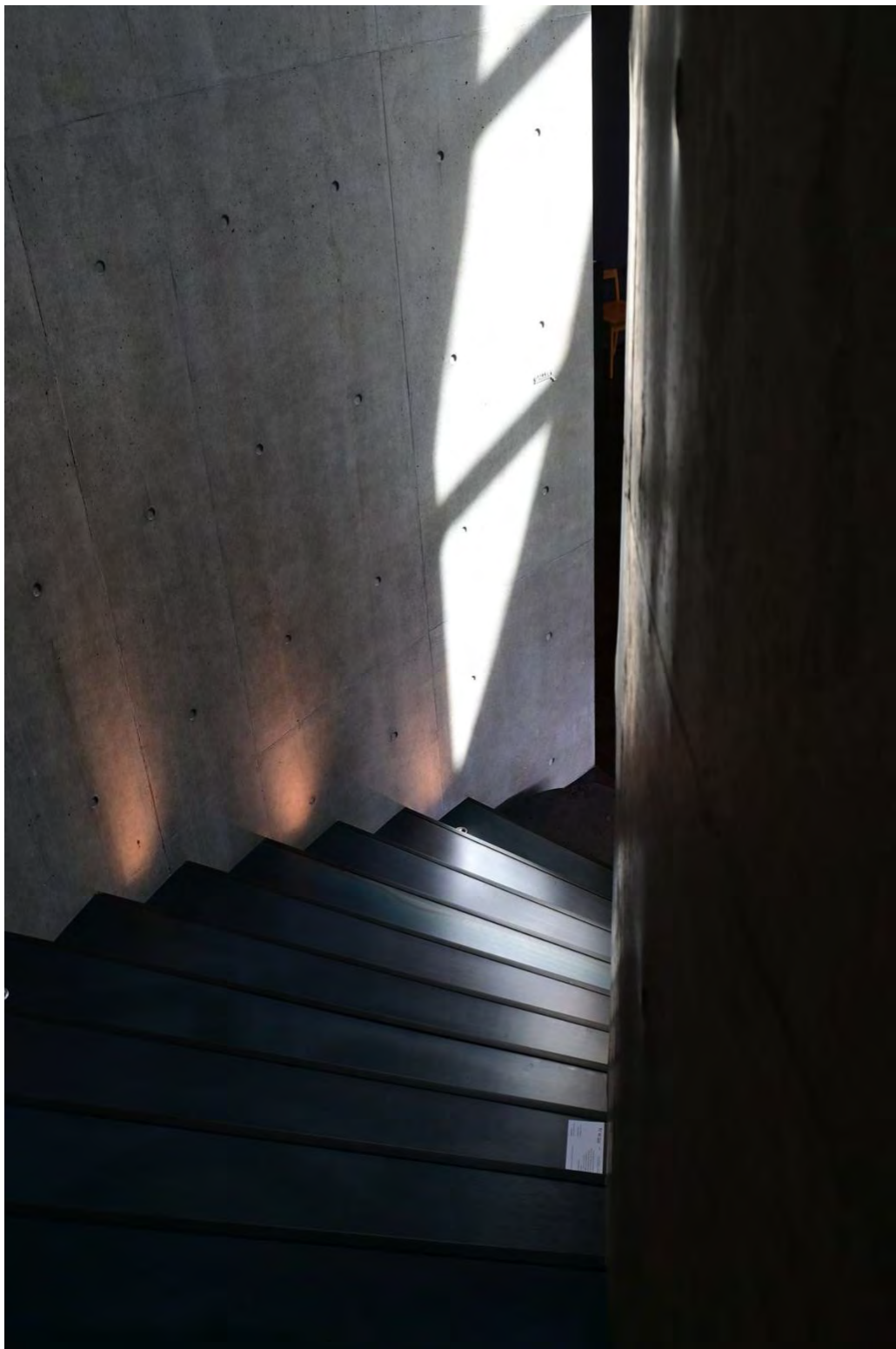
잔존은 내겐 아직 사라지는 중인 시간이다.

나는 아직 그 남겨진 시간을 바라본다.



[통과 이후]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50x33 cm]



[지나간 구조]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3x50 cm]



[남겨진 보행]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3x50 cm]

ARTIST 04

김주일

참여 섹션 02 구조적 잔존 / 03 자연의 미니멀리즘 / 06 자연의 미니멀리즘 / 07 공간과 인간의 척도

수록 작품 5 점

작가 노트

이른 아침 여섯 시 무렵, 바다와 등대 사이를 흐르는 해무가 빛을 삼키며 흰색에서 붉은색으로, 다시 노란 빛과 검은 기운으로 몸을 바꾼다. 고정된 등대 앞에서 안개는 피어났다 사라지고, 그 사이로 배가 길을 찾으며 갈매기들이 드나든다. 나는 미리 정한 구도에 풍경을 맞추기보다 자연이 스스로 화면을 이루는 순간을 기다린다. 해무의 움직임과 빛의 변화, 그 안으로 우연히 들어온 갈매기는 오래 머물지 않기에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느낀 감정을 글로 남기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문장을 낳았던 장면은 차츰 희미해졌고, 그 곁에 사진 한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진은 마음속에만 남아 있던 그때의 나를 현재로 불러오는 또 하나의 문장이 되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은 일출과 바다에서 꽃과 빌딩으로, 다시 오래된 골목과 버려진 사물로 옮겨간다. 장르를 먼저 정하지 않고 첫눈에 마음이 머문 대상을 돌아보며, 빛과 어둠이 평범한 풍경을 다르게 만드는 찰나를 붙든다.

이번 작품들은 부산 기장과 해운대, 물운대, 영도 청학동을 지나며 만난 장면에서 출발했다. 탁 트인 바다와 동화적인 등대가 있는가 하면, 외진 골목에는 버려진 것들과 그림자가 남아 있다. 같은 장소와 고정된 사물도 그 앞에 선 순간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음에 얹힌다. 자연은 해무를 피워 올렸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워버리고, 골목의 풍경도 언젠가는 사라질지 모른다.

《잔존》을 위해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생각한다. 사라지는 찰나를 한 장면 속에 조금 더 머물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물음 앞에서 내게 먼저 떠오르는 말은 여전히 짧다. “아, 그렇구나.”

작가 소개

김주일은 부산에서 교직 생활을 하며 교사사진연구회와 교직원사진전을 중심으로 사진 작업을 이어왔다. 바다와 일출, 꽃과 도시의 빌딩, 오래된 골목 등 장르를 한정하지 않고, 빛과 그림자가 평범한 풍경을 낯설게 바꾸는 순간에 주목한다. 현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활동하며 한국미학사진연구회 사무국장과 줄리센티에르 갤러리 관장을 맡고 있다. 사진 촬영기술을 지도하는 한편, 작가들의 작품 발표와 지역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전

- 2021, 2022. 《연일 벚꽃축제 기념 사진전》, 연일중학교 별별마루, 부산
- 2021, 2022. 《연일 학예전 기념 사진전》, 연일중학교 별별마루, 부산
- 2024 갤러리 카페 줄리 센티에르 오픈 기념 개인전, 인천

주요 단체전

- 2010 제18회 부산교사사진연구회 작품전, 부산학생문화회관, 부산
- 2017 제25회 부산교사사진연구회 작품전, 부산학생문화회관, 부산
- 2018 예문교직원사진전, 갤러리 예문, 부산
- 2019 제27회 부산교사사진연구회 작품전,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부산
- 2020 제28회 부산교사사진연구회 작품전, 부산학생문화회관, 부산
- 2021 제26회 교원미술전람회 작품전,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부산
- 2021 예문교직원사진전, 갤러리 예문, 부산
- 2021 부산교사사진연구회 작품전, 부산예술회관, 부산
- 2021-2022 부산지역 '사진읽기' 동호회 골목여행 사진전, 연일중학교 별별마루, 부산
- 2022 부산교사사진연구회 작품전, 갤러리 공감, 부산

주요 활동

- 한국미학사진연구회 사무국장
- 줄리센티에르 갤러리 관장
- 우각로9번길사람들 대표

사진 촬영기술 지도 및 지역 문화예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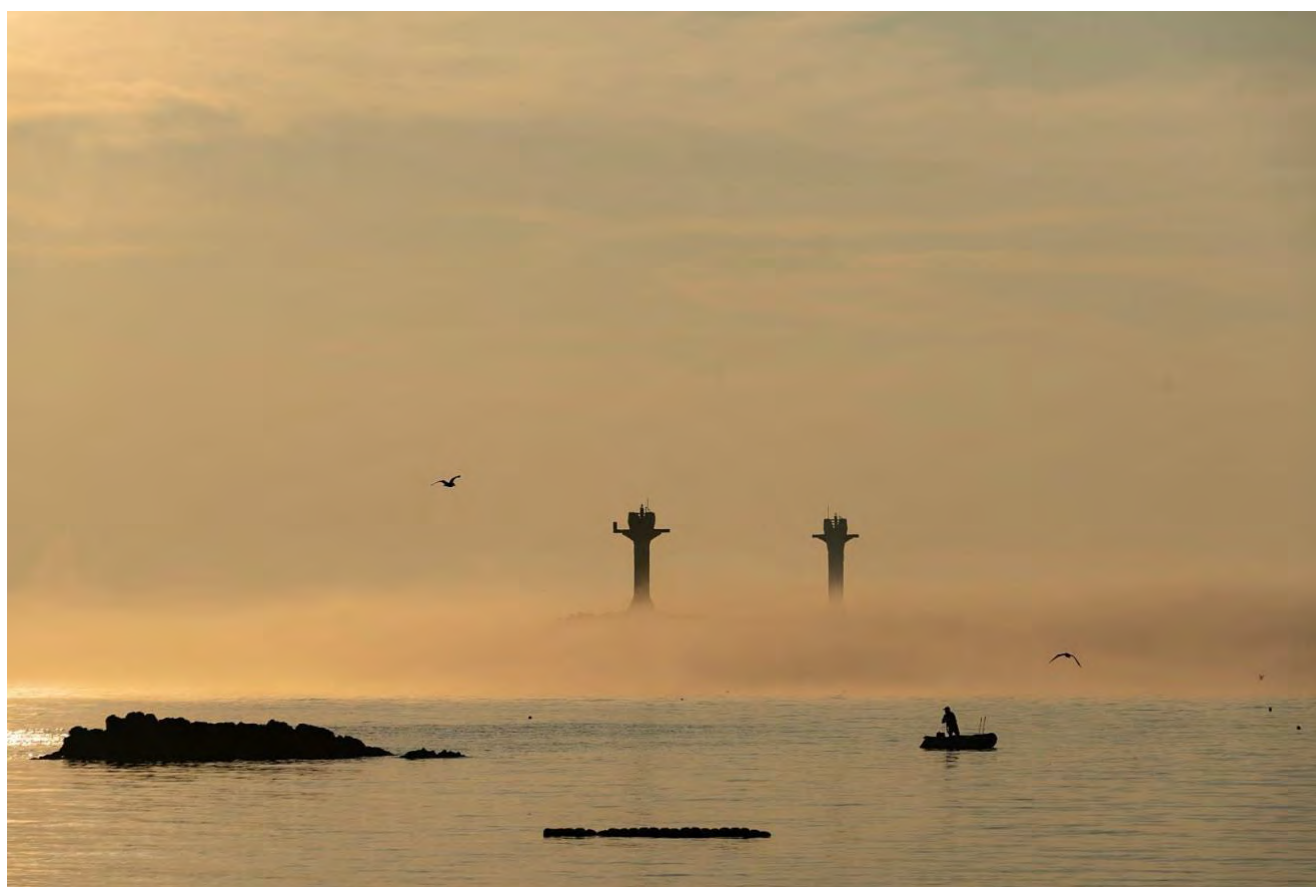
[외진 곳에서]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0x45 cm]



[처연한 아침]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45x30 cm]



[숨바꼭질]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45x30 cm]



[갈매기의 귀가]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45x30 cm]



[스미다]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0x45 cm]

ARTIST 05

노국진

참여 섹션 02 구조적 잔존 / 03 자연의 미니멀리즘 / 07 공간과 인간의 척도

수록 작품 4 점

작가 노트

벽을 오래 들여다보면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균열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벽은 건축물의 부분이기를 멈추고 하나의 표면이 된다. 시간이 지나간 방향, 힘이 작용한 각도, 페인트가 버터낸 시간, 그런 것들이 전부 거기 적혀 있다.

노자 11 장에 이런 구절이 있다. 벽을 뚫어 창과 문을 내니 빈 곳이 있어 방의 쓰임이 생긴다. 비어야 쓸모가 된다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인천 골목의 오래된 환기구가 떠올랐다. 콘크리트 블록 한가운데 뚫린 작은 사각형, 안은 어둡다. 바깥의 빛은 루버 사이로 줄무늬가 되어 들어간다. 벽이 숨을 쉬는 곳이다.

나는 사진가가 아니다.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노자를 읽는 사람이다. 카메라를 들고 나가는 시간은 그 모든 일에서 잠시 빠져나오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같은 것만 찍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벽, 금, 그림자, 허물어진 자리였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골목에서 철거된 건물의 벽면을 봤다. 스프레이로 뿌려진 글씨와 색들이 부서진 콘크리트 위에 남아 있었다. 누군가의 이름인지, 향의인지,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뿌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건물은 사라지는 중이었지만 그 색들은 아직 벽 위에 붙어 있었다. 잔존이라는 단어의 감각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네 장의 사진은 모두 벽이다. 갈라진 벽, 가려진 풍경, 부서진 벽, 그림자가 덮인 벽, 노자는 '있음이 이로움을 만들고 없음이 쓰임을 만든다'고 했다. 이 벽들 위에 남은 것은 그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다. 있다고 하기엔 곧 사라질 것이고, 없다고 하기엔 아직 여기 서 있는 것들이다.



[벽의 계단]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0x45 cm]



[철거지의 색]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0x45 cm]



[사이의 해]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45x30 cm]



[그림자, 그리고 창]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45x30 cm]

ARTIST 06

박진경

참여 섹션 02 구조적 잔존 / 04 어둠 속의 사물

수록 작품 3 점

작가 노트

세 장의 사진을 찍으며 나는 사물보다 빛과 만난 표면의 변화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림자는 가지의 위치에 따라 길이와 방향을 달리하고, 젖은 바닥의 밝은 면도 한곳에 고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촬영할 때에는 밝은 부분만 선명하게 드러내기보다 빛과 어둠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두었다. 화면 밖으로 밀려난 가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남겨두었다. 무엇이 이 모양을 만들었는지 모두 설명하기보다, 바닥의 결 위에 놓인 그림자와 물기, 창 사이로 잘려 들어온 빛의 모양을 따라갔다.

《잔존》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사라진 뒤의 어떤 장면보다, 사라지는 동안 표면에 잠시 남아 있는 밝고 어두운 면이다. 가지는 보이지 않아도 그림자는 남고, 빛이 지나간 자리에는 젖은 바닥의 밝기가 남는다. 사진 안에서는 움직이던 그림자와 지나가던 빛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그 멈춘 모양을 바라보며, 한순간의 빛과 그림자가 사진 안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작가 약력

-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예술지도사 과정 수료
- 사진기능사
- 사진예술지도사
- 우진사진연구회
- 인천 12 포커스 회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전시와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림자가 머문 자리]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45x30 cm]



[남아 있는 동안]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3x50 cm]



[빛이 지나간 뒤]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50x33 cm]

ARTIST 07

박철현

참여 섹션 02 구조적 잔존

수록 작품 3 점

작가 노트

잔존(사진)이라는 것은.....

사라진 사건, 시간, 움직임 등이 본질은 사라지고 있었다는 흔적을 잡아 두는 것이라 생각한다

얼음과 눈은 기온이 물의 흐름을 얼음이라는 상태로 잠시 묶어 두는 한편

한 밤중에 내려앉은 흰눈을 한낮의 따뜻한 햇살과 바람으로 부터 얼음 위에 잠시 묶어 뚫으로써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기온이 영하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물방울이 지나간 자국은 밤새 아름 아름 맺힌 이슬들이 아침 햇살에 흐르고

물체 표면에는 무언가가 잠시 머물렀던 것이 영혼이 존재하지 않으며 흔적만을 남김으로써

재로 존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어둠 속의 붉은 불 빛은 불빛을 만들어 놓은 대상은 선명히 알수는 없지만

어둠속의 한줄기 빛 하나가 길게 잔광으로 흔적을 남기고 있으므로써

사람이나 사건 역시 사라진 뒤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속에 희미한 흔적으로 남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잔존(사진)은 남아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라졌음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못한 것에 관한 이야기라 생각 한다.

작가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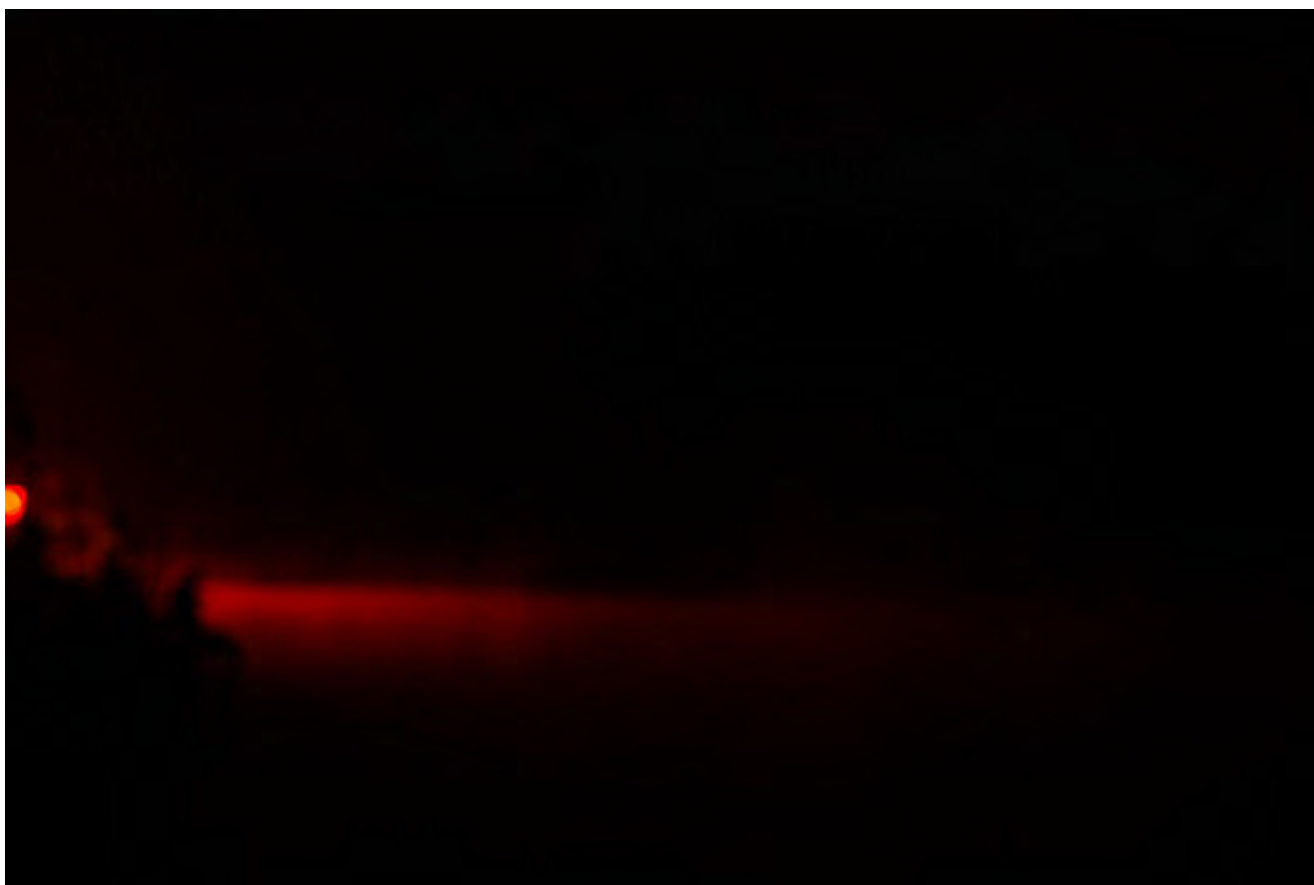
전국공무원사진가클럽 총무 역임

사진과 인문학 회원



[부재의 흔적]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45x30 cm]



[잔광]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45x30 cm]



[녹지 않은 시간]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45x30 cm]

ARTIST 08

방극두

참여 섹션 01 색채가 발언하는 공간 / 05 이중 레이어와 경계

수록 작품 3 점

작가 노트

우리는 흔히 시간을 끊임없이 흐르며 결코 되돌아올 수 없는 강물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흘러간 과거를 향해 아쉬움의 눈길을 보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막연한 불안과 기대를 품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바꾸어 세상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시간은 단순히 흘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차곡차곡 겹겹이 쌓여 거대한 적층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시의 오래된 골목길, 낡은 담벼락에 겹겹이 붙어 떨어져 나간 포스터의 흔적들, 유리창 너머 빛바랜 필름 광고지등의 질감 속에는 오랜 세월속에 흘러온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러하듯,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존재는 조금씩 낡아가며 저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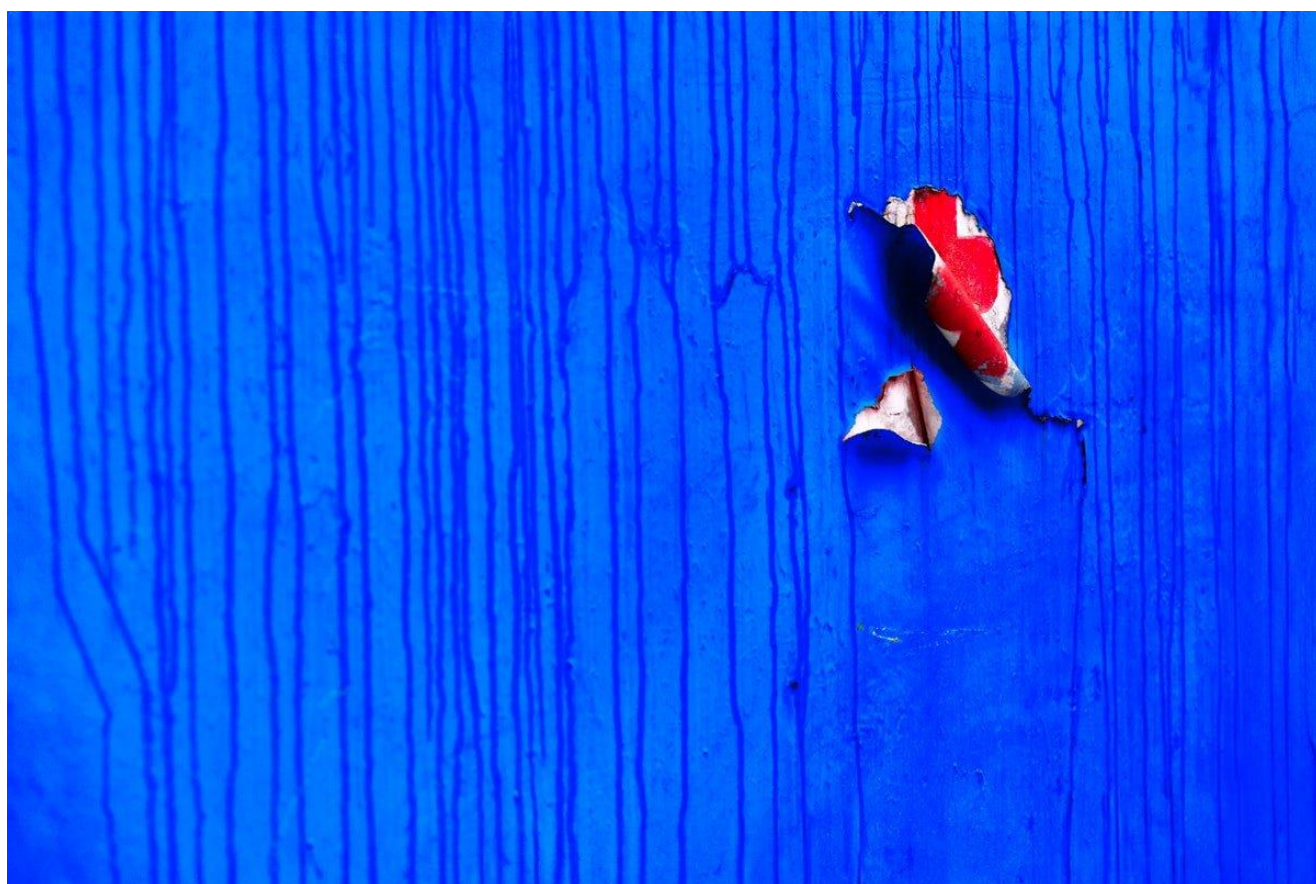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낡아간다는 것은 결코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존재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며, 더욱 깊고 그윽한 색채와 고유의 질감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의 변화나 낡음 그 자체에만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 사물과 삶에 깃든 시간의 깊이를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한층 더 넓어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걸어온 발자국과 당신의 시간은 지금 문득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당신의 기억과 마음의 속에 깃든 따스하고 아름다운 흔적 하나를 오늘 하루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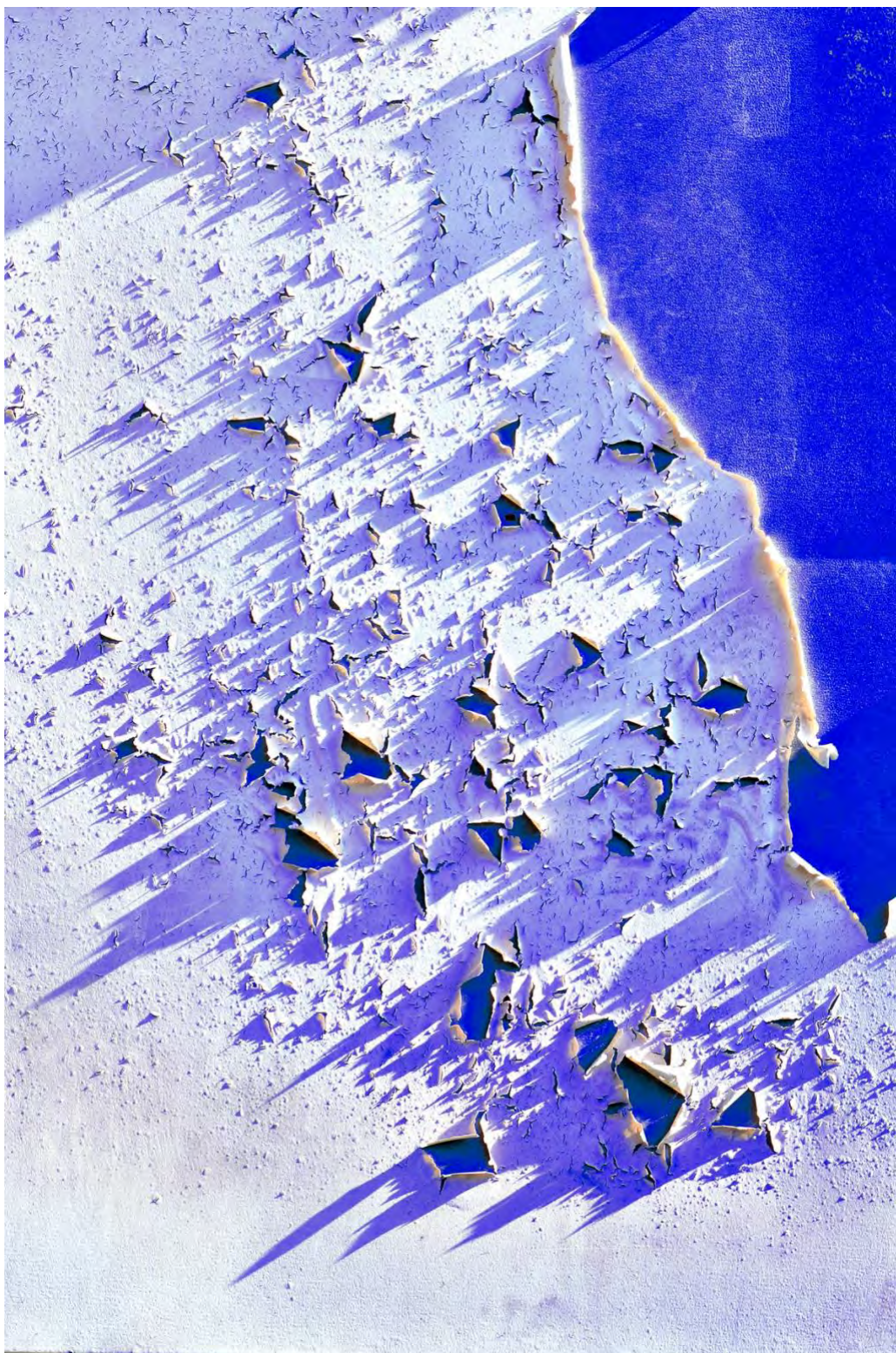
작가 약력

1. 2020.02.15~02.21: 사진콘서트 DESIGNED NATURE 인천 선광문화재단
2. 2020.02.21~02.27: 경계에서다 인천문화예술회관
3. 2020.05.01~05.31: 사진콘서트 DESIGNEDSCAPE+. 서산여미갤러리
4. 2020.12.26~12.30: 라무르-사랑. 한국시각 인천 신포동 시오랜드
5. 2021.03.25~03.31: 로마국제사진전. 전주 F 갤러리
6. 2021.04.09~04.15: 2021 로마국제사진전 이탈리아 로마 메디나갤러리
7. 2022.11.01 연지와의 시간들 사진집 출판
8. 2022. 12.17~12.18 : 크리스마스 & 오아시스 인사동 시작갤러리
9. 2023. 01.08~01.14 : 아름다운순간 케이스 24
10. 2023. 11.23~11.26 인천아시아 아트쇼 인천송도컨벤시아
11. 2024. 01.20 ~01.28 사랑을 미루지 마라 케이스 24
12. 2024. 06.22 ~07.05 다큐에 미학을 입다 우현문 갤러리
13. 2024.11.11~11.17 재능대 사진영상미디어학과 졸업전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4. 2025.08.25 ~ 09.13 개인전 Patina 의 기억 줄리센티에르 갤러리



[표면 아래]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아크릴] | 규격 [1118x3000 cm]



[벗겨진 경계]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3x50 cm]



[지워진 문장]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3x50 cm]

ARTIST 09

서순희

참여 섹션 03 자연의 미니멀리즘

수록 작품 2 점

작가 노트

나에게는 가깝지만 멀었던 장소들
 사진 하는 사람은 한 번쯤 방문했던 장소이다
 이른 아침 혼자 가본 곳 나에겐 새로움으로 다가왔다.

사진1- 외롭게 어둠 속 탁자 위에 앉아 기다림의 애잔함을 느꼈다.
 봉고 특유의 울림을 허밍으로 흥얼거리며, 그 리듬에 내 몸을 맡긴 채
 느낌은 어느새 내 몸속 깊이 스며들어 오래도록 잔존하고 있었다.

사진2- 빛과 그림자, 그리고 선으로 빛어진 곡선들.
 존재와 사라짐의 경계에서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지나간다.
 그러나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그림자가 남고,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는다.

작가 약력

서순희는 사진이 음악을 만나 인생을 노래하는 여행 사진가이다
 1993년부터 카메라를 손에 쥔 그녀는 35개국 이상을 여행하며 각지의 풍경 속에서 인간과 삶의
 이야기를 기록해 오고 있다
 2023년에는 [고독 속에 열정을 담다- 수니의 유럽인도여행]책을 출간했고, 2024년 발칸 여행하며
 촬영한 사진을 모아 [수니의 사진 이야기 개인전]을 개최했다,
 2023- 2025년에는 다문화 여성들의 한국 정착기를 담은 사진집 [다문화 여성 한국살이] 1집-

3집까지 제작하였다

2001년부터 여성밴드를 창단해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다문화 여성들에게 음악 지도를 하고 있다

다문화 여성들의 애환을 그린 창작곡 외 다수의 자작곡이있다.

그녀에게 음악과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고 존재의 이유를 알게하는 끝없는 사유의 여정이자 삶의 동반자이다.

인스타그램- seosooni_hillary



[곡선 너머의 잔상]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45x30 cm]



[어둠 속에 묻혀 버린 울림]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3x50 cm]

ARTIST 10

신연태

참여 섹션 02 구조적 잔존 / 05 이중 레이어와 경계 / 06 자연의 미니멀리즘 / 07 공간과 인간의 척도

수록 작품 4 점

작가 노트 <보이는 소리, 들리지 않는 소리>

비가 내리는 숲길에서 걸음을 멈춘다. 발밑의 물웅덩이로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지고, 그때마다 둥근 파문이 번졌다가 사라진다. 낙엽 가장자리가 물결에 밀려 조금씩 흔들리고, 우산을 든 사람의 실루엣은 물 위에서 흐려졌다가 다시 윤곽을 드러낸다. 하늘과 나무의 반영은 파문에 밀려 정확한 경계를 잃는다. 나는 떨어지는 빗방울보다 그 뒤에 남는 흔들림을 바라본다. 비가 만든 사건보다, 비가 지나간 자리에서 조금 늦게 사라지는 것들을 따라간다.

이 작업에서 반복은 같은 장면의 되풀이가 아니다. 빗방울은 매번 다른 원을 만들고, 물결은 서로 겹쳤다가 지워진다. 낙엽은 물속에 가라앉은 채 그 움직임을 받아낸다. 우산은 몸을 가리는 물건이지만, 물 위에서는 검은 형상과 흐린 반영으로 바뀐다. 실체보다 반영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순간, 형태보다 물결이 앞서는 순간이 있다. 사진은 그 순간의 표면을 붙든다.

<보이는 소리, 들리지 않는 소리>는 청각이 사라진 자리를 화면으로 더듬는 작업이다. 원형의 파문, 흔들리는 반영, 물에 잠긴 낙엽은 모두 소리가 지나간 뒤 남은 표면이다. 《잔존》에서 이 작업은 오래 남는 사물을 보여주기보다, 금방 사라질 흔적이 눈앞에 머무는 짧은 시간을 붙든다. 물결은 사라지고, 물 위에 늦게 번지는 원도 닫힌다. 흔들려서 오히려 더 또렷해 지는 반영, 바닥에 가라앉아 아직 움직이고 있는 낙엽의 무게가 화면에 남는다.

작가 약력

인천 재능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학과 졸업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예술지도자 과정 수료 및 사진예술인지도자 자격취득

인천재능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창작실기/아카데미과정 수료

인천 남동구 예술 문화회 사진분과 정기 사진전 등 다수 사진전 참여

1. 'JEIU 재능회' 4번째 사진전 개최... (2022년 12월 3일 자)

• URL:<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2534>

2. 콘서트 형식 특별한 사진전 'DESIGNED NATURE' (2020년 2월 13일 자)

• URL:<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3242>

3. 커뮤니티아트 현대사진전 '사진에 반하다' (2017년 9월 5일 자)

• URL:<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78299>

4. 깊은 심심함' 혼성 누드퍼포먼스 사진 기획전 (2017년 12월 25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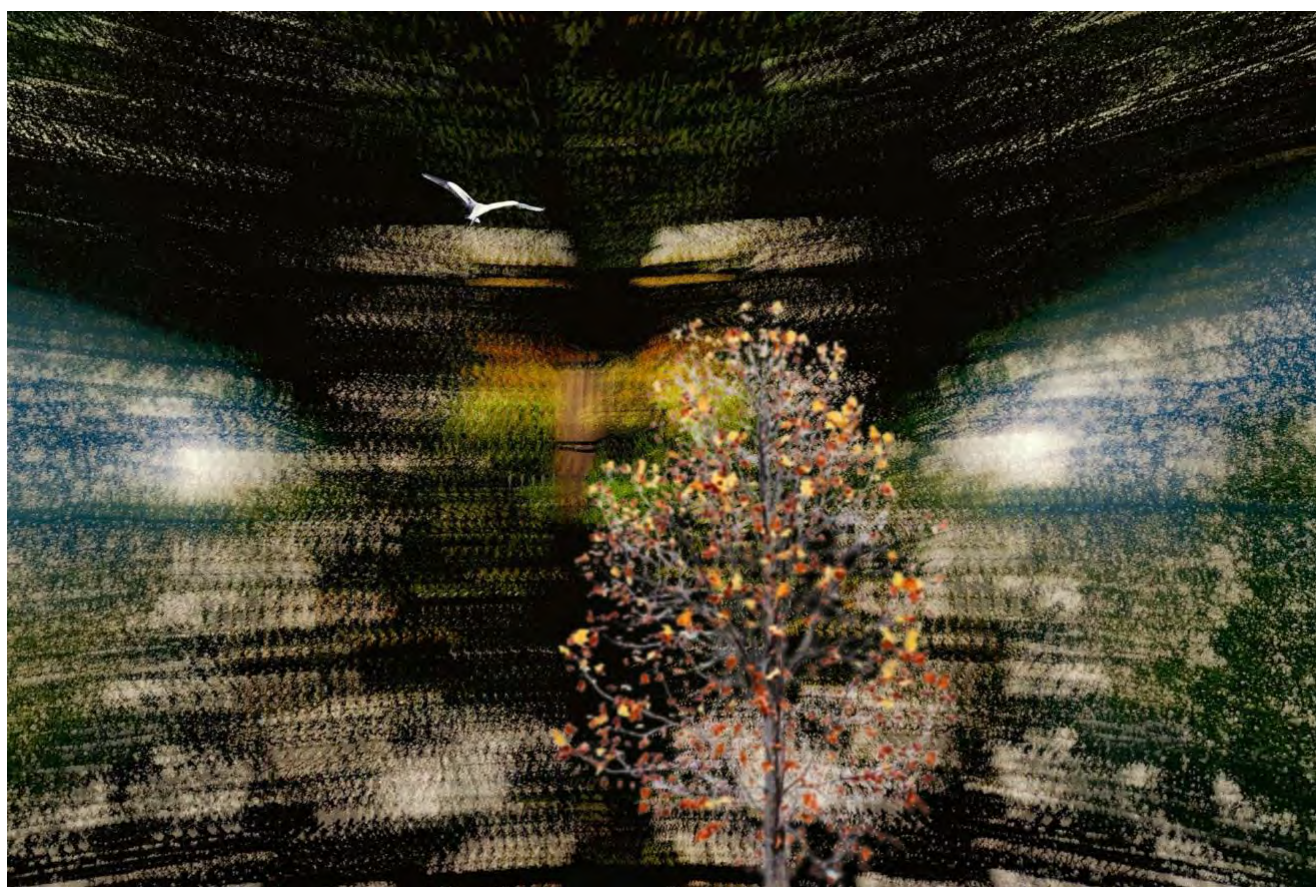
• URL:<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622/>

5. '폐허 속 예술' 한국시각예술문화연구소 현대사진전 '허물미'

URL:<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598>

6. 한국시각예술문화연구소 창립 11주년 현대사진특별기획전 '아름다운 순간'

URL:<https://www.kpnews1.kr/news/articleView.html?idxno=28617>



[흔들림의 기억]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0x45 cm]



[빛이 머문 자리]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3x50 cm]



[떠난 것들의 추억]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90x60 cm]



[비가 남긴 것들]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0x45 cm]

ARTIST 11

이상설

참여 섹션 01 색채가 발언하는 공간 / 05 이중 레이어와 경계

수록 작품 3 점

편집 확인용 파일명: 이상설 01.jpg | 이상설 02.jpg | 이상설 03.jpg

작가 노트

어떤 공간에는 사건이 없다. 사람이 지나갔을 수도 있고, 물이 흘렀을 수도 있다.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남아 있는 것은 빛과 표면뿐이었다.

파란 조명이 유리면에 닿았고, 그 위에 물방울들이 수백 개씩 고여 있었다. 셔터를 누르기 전에 잠시 그 표면을 들여다봤다. 물방울 하나의 크기는 손톱보다 작았고, 바닥 어딘가의 앰버 광원이 그 안에서 작은 불씨들로 흩어졌다. 투명한 것들이 모여 불투명해지는 방식이 거기 있었다.

잔존하는 것들은 자신이 무엇의 결과인지 대개 알지 못한다.

청록 벽면에서 먼저 본 것은 수직의 줄기들이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 무엇인가의 자국들, 물인지, 도료인지, 습기가 고인 뒤 마른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좌측에서 흰 빛이 번졌고, 빛이 닿은 자리의 줄기들은 뚜렷하게 들떠 있었다. 벽면 중간 어딘가에는 인체 윤곽 같은 음영이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도 특별한 돌출이나 오목함이 없었다. 빛이 그렇게 모인 것이었다.

붉은 공간의 코너에서는 두 벽면이 만나는 선이 정확했다. 벗겨진 회반죽이 군데군데 드러났고, 그 아래에서 바탕재의 질감이 달랐다. 강렬한 붉은 조명 아래 흠집 하나하나가 제 그림자를 가졌다. 프레임 아래 오른쪽 끝에 노란 삼각형이 들어왔다. 경고 표지인지 다른 조명의 번짐인지, 현장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찍고 나서야 거기 있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이 사진들을 찍으면서 사라지는 것과 남는 것의 경계를 생각했다는 말을 할 수 없다. 그때는 그냥 표면이 거기 있었고, 빛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셔터를 누른 뒤 빛은 달라졌거나 사라졌다. 물방울은 흘러내렸거나 증발했다.



[색의 체류_1, 2026]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아크릴] | 규격 [1118x3000 cm]



[색의 체류_2, 2026]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아크릴] | 규격 [1118x3000 cm]



[푸른 응결]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5x50 cm]

ARTIST 12

이수정

참여 섹션 01 색채가 발언하는 공간 / 06 자연의 미니멀리즘 / 07 공간과 인간의 척도

수록 작품 3 점

작가 노트

베란다 창가를 내려다보았다.

호숫가 중앙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수물이 날리며 반사되어 무지개 빛으로 보인다.

호수 위에서는 갈매기들의 목욕으로 일렁이는 물결이 파문의 무늬를 만들었다.

빛이 지나가며 한순간에 사라졌다 만들어 지는 흐릿함의 잔존들이 색의 층을 만들어 준다

바람에 날리는 물방울의 소멸과 생성되는 빛의 색이

교차하며 만들어 지는 잔존을 담아본다

작가 약력

이수정은 인천재능대학교 사진아카데미와 창작 과정,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예술 지도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사)한국사진작가협회와 (사)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한다. 사진예술 지도사와 사진인문학 전문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촬영과 교육을 오가며 사진의 조형성과 장소의 기억을 함께 살핀다.

작가 이력

2017-2018 인천재능대학교 사진아카데미 및 창작과정 수료

2022.02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예술지도사 과정 및 자격 취득

2026.07 사진인문학전문지도자 자격 취득

현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현재 (사)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정회원

2015-2017 인천 섬사진 프로젝트 《섬마을 이야기》

2016.04 중국 웨이하이 교류전(중국 웨이하이 교류전)

2017 《사진에 반하다》: 겸재정선미술관

2017.07 현대사진기획전 《깊은 심심함》: 인천아트플랫폼

2018.07 현대사진기획전 《호모 데우스》

2019.10 《사진의 생각》: 만해기념관

2019.12 NOVI LIGURE INT'L PHOTO EXHIBITION: Champion Museum, Italy

2020 제 4 회 평택국제사진축전 전시

2020.02 전국사진콘서트 《Designed 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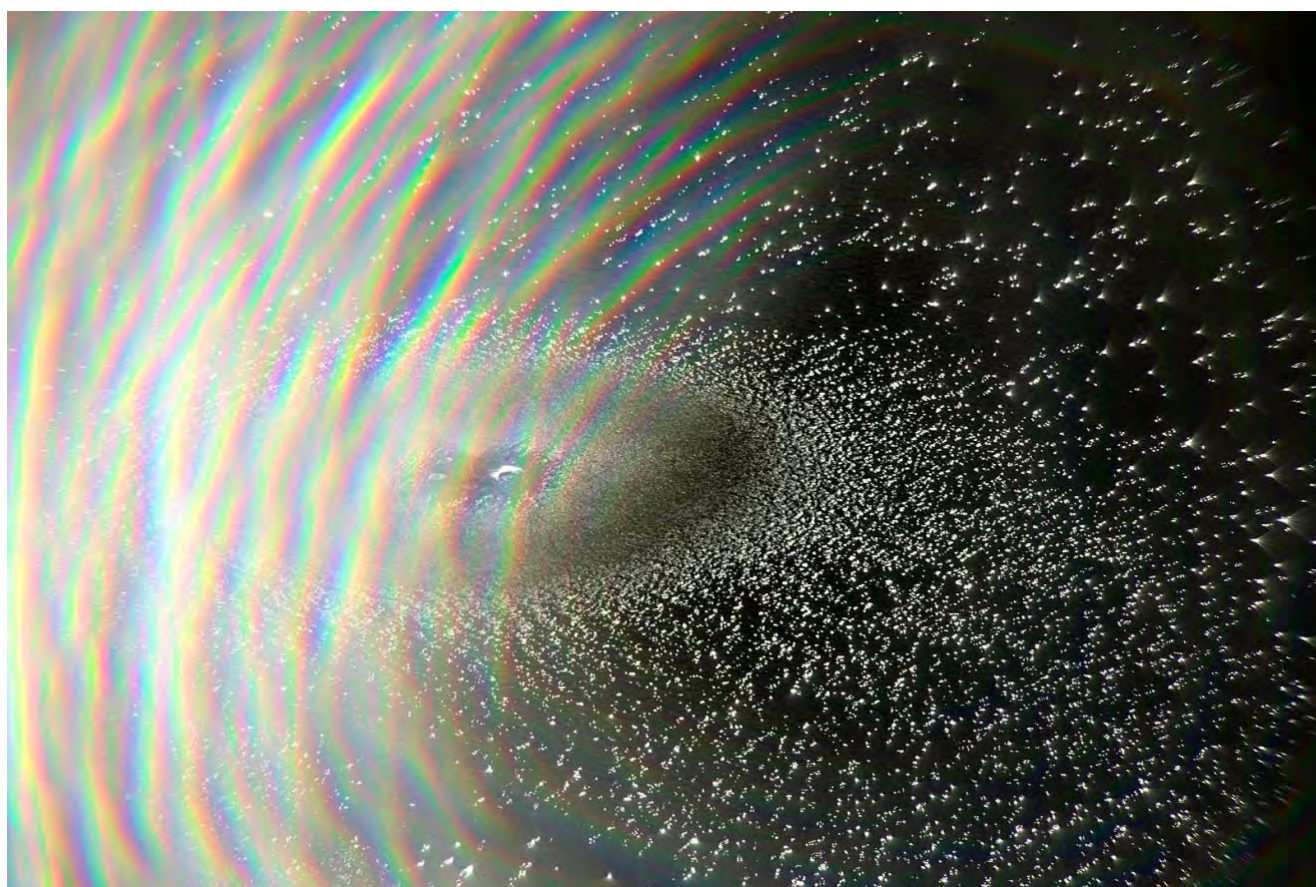
2020.02 현대사진기획전 《경계에 서다》

2024 인천아트쇼 전시

2025 인천국제현대사진기획전 전시

2026 Kyotographie KG+ 국제사진페스티벌

2017-2023 현대사진 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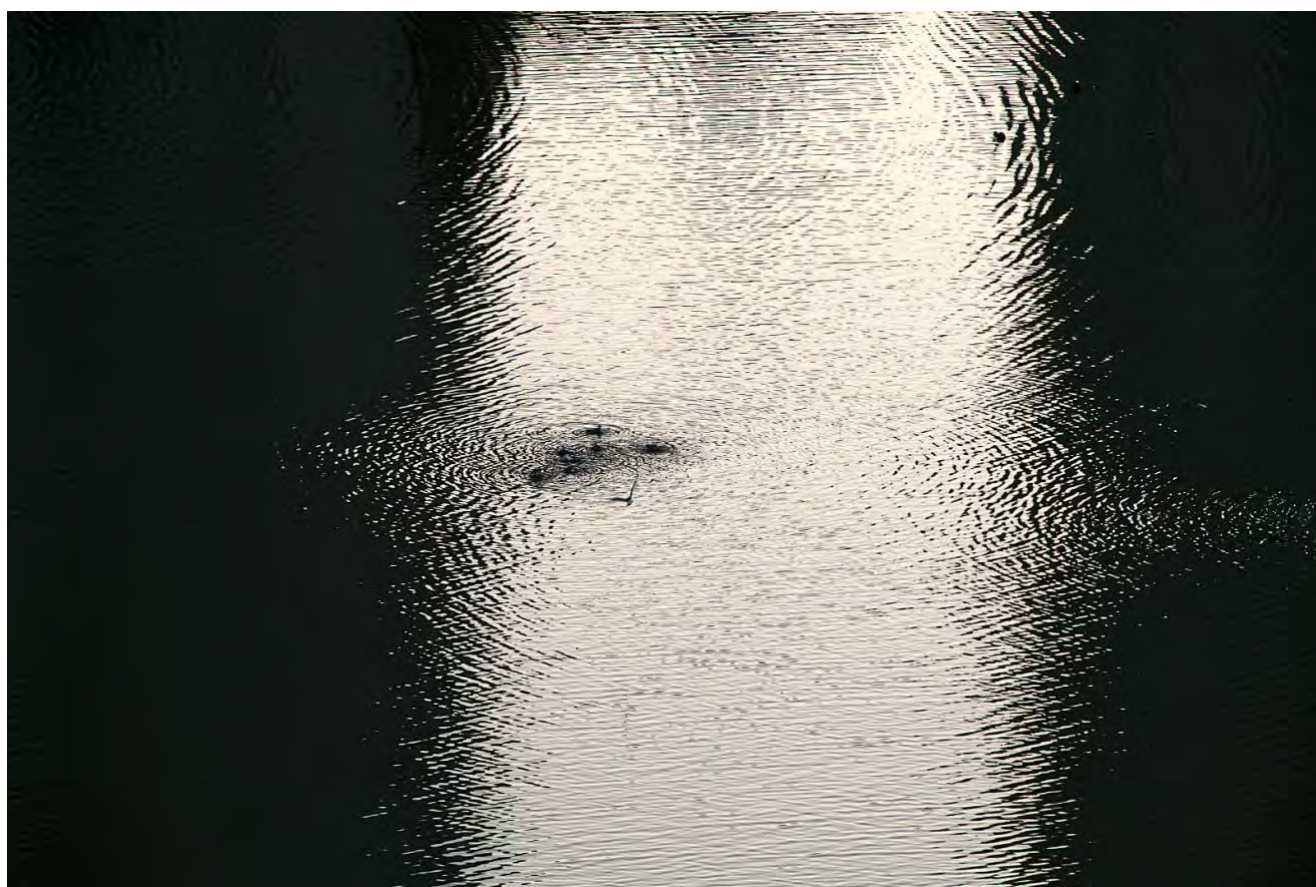
[빛의 변주곡, 연작 2026_1]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아크릴] | 규격 [1118x3000 cm]



[빛의 변주곡, 연작 2026_21]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45x30 cm]



[빛의 변주곡, 연작 2026_3]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0x45 cm]

ARTIST 13

이재등

참여 섹션 06 자연의 미니멀리즘

수록 작품 3 점

작가 노트

사막은 끊임없이 자신을 지우고 다시 그린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모래의 결이 생기고,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발자국이 남는다.

그러나 그 흔적들은 또 다른 바람을 만나 서서히 사라진다.

나는 사라지는 것이 과연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지 묻는다.

눈앞의 흔적은 지워져도 그곳을 지나온 시간과 기억, 존재의 경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을 뿐, 그것들은 우리 안에 다른 모습으로 머문다.

모래 위에 잠시 새겨졌다 사라지는 발자국처럼 우리의 삶도 시간 속에서 희미해진다.

그러나 사라진 자리에는 기억과 감정, 그리고 존재했다는 흔적이 남는다.

잔존은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 아니라,

사라진 뒤에도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존재의 기억이다.

작가 약력

1.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2. 사진기능사, 사진예술지도사 자격 보유
3. 개인전 "산이 나를 품고 내가 산에 오르다" / 인천문화예술회관
4. 우진사진연구회 등 다수의 연합전 참여
5. 전문산악인으로 등반과 자연을 기록하며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는 순간을 작품에 담아 왔다



[바람이 머문 자리]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90x60 cm]



[남겨진 선율]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45x30 cm]



[지워지지 않은 길]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45x30 cm]

ARTIST 14

이현진

참여 섹션 05 이중 레이어와 경계 / 07 공간과 인간의 척도

수록 작품 3 점

작가 노트

창을 찍은 게 아니다.

콘크리트 벽에는 거푸집 볼트 자국이 규칙적으로 박혀 있다. 천장에서 대각선으로 뚫린 좁은 틈을 통해 빛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바닥에는 자갈이 깔려 있고, 빛은 그 위에 직사각형 하나를 만든다. 어느 날의 어떤 각도에서만 생기는 형태다. 그 시간이 지나면 빛도 그 모양도 없어진다.

자갈은 그대로 있다.

어두운 통로 끝에서 빛이 번진다. 문틀 옆 벽돌 표면은 손으로 건드리면 모래처럼 무너질 것 같은 색이다. 카메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 빛이 있는 쪽은 흐리게 남겼다.

창이 벽 위에 자기 형태를 찍어낸다. 창살의 격자가 벽면에 눌리고, 빛이 사각형으로 여러 개 겹쳐 쌓인다. 창 자체는 화면 가장자리에 조금만 걸쳐 있다.

거친 벽과 콘크리트의 표면, 어두운 공간을 지나 들어오는 빛.

나는 밝은 곳보다 밝음과 어둠이 만나는 경계에 오래 시선을 둔다.

좁은 틈을 지난 빛이 벽과 바닥에 닿을 때, 평소 지나쳤던 흔적이 잠시 드러난다.

빛은 일부만 보여주고 다시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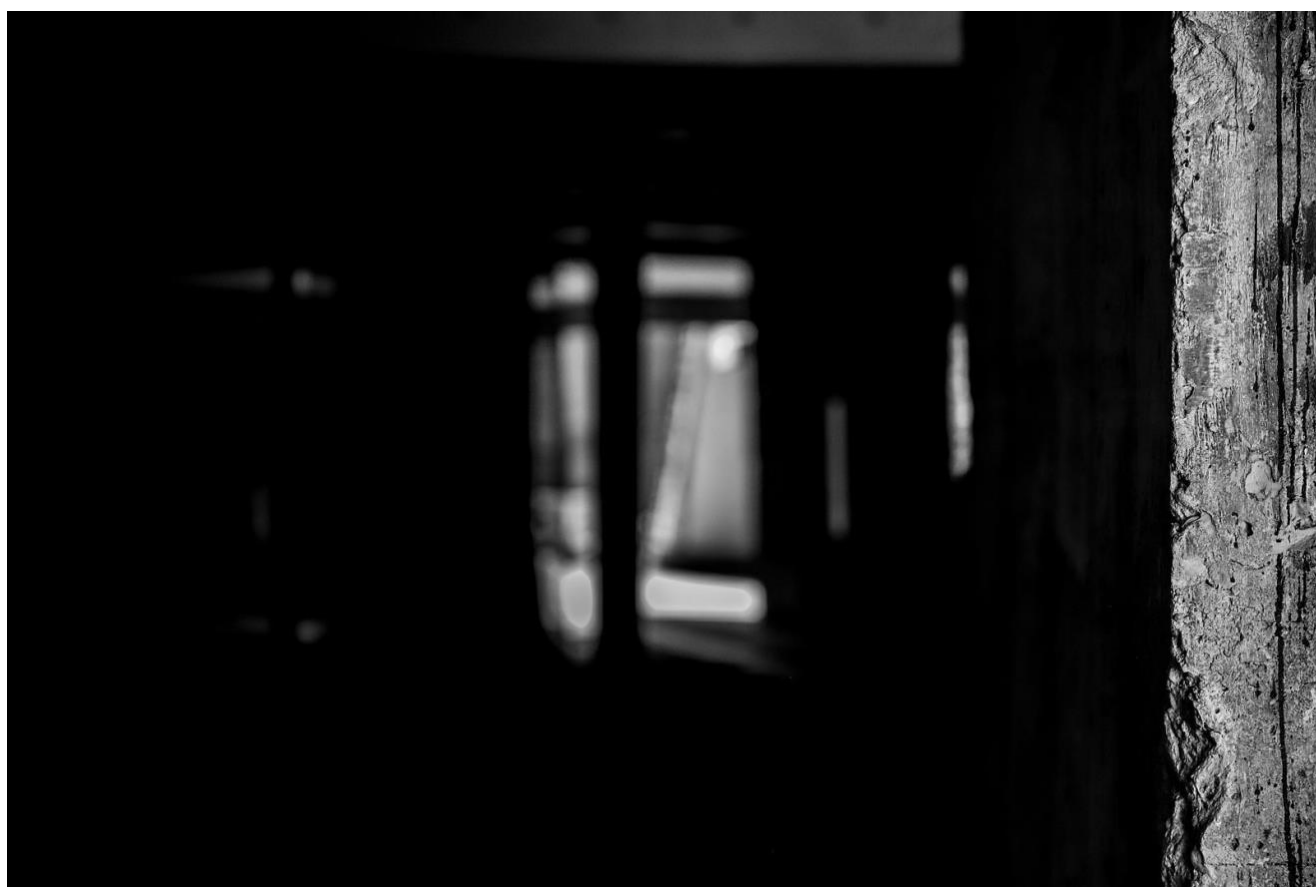
그래도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시간이 지나간 자국이 남아 있다.

이 작업은 모두 떠난 뒤에도 그곳에 남아 있는 것들을 바라본 기록이다.



[빛이 머문 자리_1]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60x90 cm]



[빛이 머문 자리_2]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45x30 cm]



[빛이 머문 자리_3]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0x45 cm]

ARTIST 15

정기화

참여 섹션 02 구조적 잔존 / 03 자연의 미니멀리즘

수록 작품 3 점

작가 노트

모든 것은 시간 속으로 사라지지만,
 세상에는 끝내 지워지지 않고 남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라짐과 남겨짐의 경계에서 마주한 풍경입니다.

차가운 계절 속에서도 끝내 이어지는 생명의 흔적,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갈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흐릿한 파도 너머의 고독한 등대,
 그리고 저물어가는 하루 속에서 우리가 아직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로등의 온기는
 끝내 '남겨진 불빛'이 됩니다.

비워냄으로써 또렷해지는 여백과, 거친 흐름 속에서도 끝내 버텨내는 풍경들.
 이 길 위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소중한 자리를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겨진 마음]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0x45 cm]



[이정표]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90x60 cm]



[잔광]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45x30 cm]

ARTIST 16

정현숙

참여 섹션 04 어둠 속의 사물 / 05 이중 레이어와 경계

수록 작품 3 점

작가 노트

유리 위에 건물의 어두운 형체가 겹치고, 그 한쪽에 촬영하는 나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검은 면 사이로는 산의 일부가 열리고, 좁은 틈 너머에는 나무가 보인다.

온전히 보이는 것은 많지 않다. 나는 이런 장면 앞에서 자주 멈춘다.

이미 알고 있는 풍경인데도, 빛과 반사와 가려진 면을 통해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순간이 온다.

나는 대상을 모두 보여주기보다 가려진 부분과 어둠을 화면에 남겨 둔다.

반사된 형상과 실제 풍경이 포개지면서 무엇이 앞에 있고 무엇이 뒤에 있는지 흐려질 때가 있다.

그 겹침을 풀지 않는다. 어떤 사진은 확인되지 않는 무언가를 안고 있다.

보려 했지만 끝내 식별되지 않는 형태, 윤곽이 흐려지는 지점. 나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잔존》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사라진 뒤 남은 물질에만 있지 않다.

형체가 보이지 않거나 어둠에 가려져 있어도 아직 그 자리에 있다고 느껴지는 무엇이 있다.

나는 그것을 붙잡아 설명하기보다 빛이 멈춘 표면과 좁게 열린 틈 안에 그대로 두려 한다.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사진이 찍힌 이후에도 결정되지 않는다.



[통과하지 못한 빛, 연작_2026_1]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90x60 cm]



[통과하지 못한 빛, 연작_2026_2]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4x50 cm]



[통과하지 못한 빛, 연작_2026_3]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4x50 cm]

ARTIST 17

지선규

참여 섹션 03 자연의 미니멀리즘

수록 작품 2 점

작가 노트

기와 위의 눈은 밤새 내린 건지 사흘째 쌓인 건지 알 수 없다.

처마 끝에서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1989 년, 처음 카메라를 들고 찾아다닌 건 야생화였다. 공사가 멈춘 절개면, 개발이 끝난 자리의 빈 땅, 그런 데서 꽃은 피었다. 밟히지 않은 흙이 있으면 무언가는 자랐다. 나는 그것을 찍었다.

아름다워서라기보다, 거기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흙 위에 웅크리면 꽃은 도망가지 않았다.

그 단순한 사실이 사진을 계속하게 만든 가장 오래된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났다. 야생화는 어느 사이 호수가 되고 기와집이 되었다. 피사체가 달라진 게 아니었다. 내가 달라진 것이었다.

한국미학사진연구회에 들어오면서 사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무엇을 담느냐가 아니라, 사진이 무엇을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 물음이 카메라를 드는 손의 무게를 바꿨다.

연못 수면에 하늘이 고였다. 아파트가 보이는 방향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갈대는 물 위의 실체와 물속 반영 사이에서 수직으로 섰다.

어느 쪽이 진짜냐고 묻지 않았다. 두 쪽 모두 거기 있었으니까.

사진은 어떤 것이 있었음을 기록한다. 동시에, 그것이 이미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함께 새긴다. 셔터가 닫히는 순간은 무언가를 포획하는 동시에, 그것이 이미 과거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잔존]이라는 제목을 붙인 건 살아남은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들이 사라지는 중에 있다는 사실, 그 앞에 카메라를 들고 서서 바라본 시간들의 기록이다. 나는 셔터를 눌렀다. 그것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고인 것들]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45x30 cm]



[잔설]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45x30 cm]

ARTIST 18

최옥희

참여 섹션 01 색채가 발언하는 공간 / 02 구조적 잔존

수록 작품 3 점

작가 노트

벽 안에 머무르는것 아니라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어

길을 나섭니다.

누군가와 깊이 이어지고 싶어

길위에 섭니다.

결국 그 누군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이란 나에게 그런 여정입니다.

길 위에서

빛을 담고,

어둠을 담고,

그림자와 색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사랑을 담아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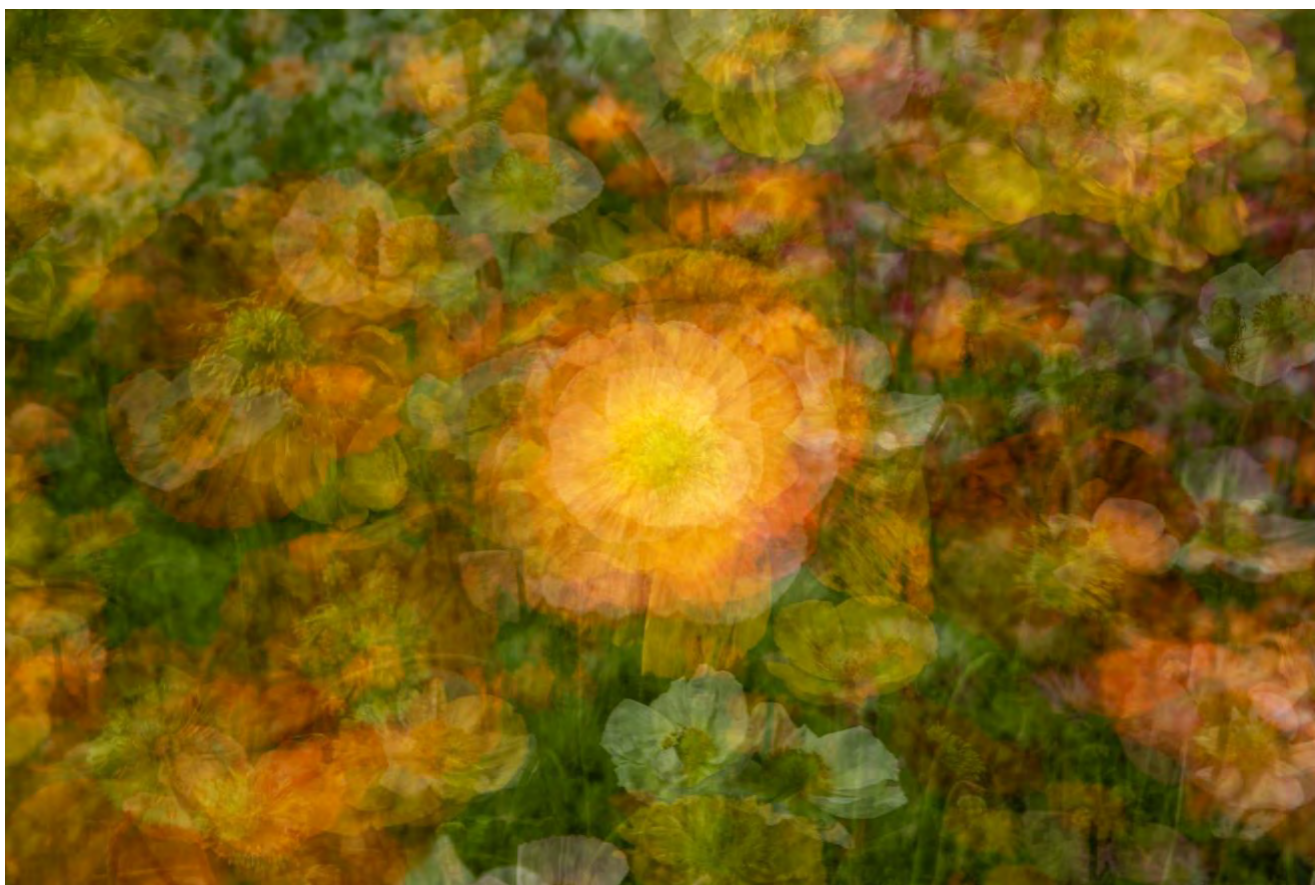
오늘도 사진이라는 언어로

나를 세상에 슬그머니 내어놓습니다.



[꿈을 꾸다]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아크릴] | 규격 [1118x3000 cm]



[색의 여운]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45x30 cm]



[푸른 가을]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45x30 cm]

편집 확인용: 섹션 02 / 최옥희 2.jpg

ARTIST 19

채수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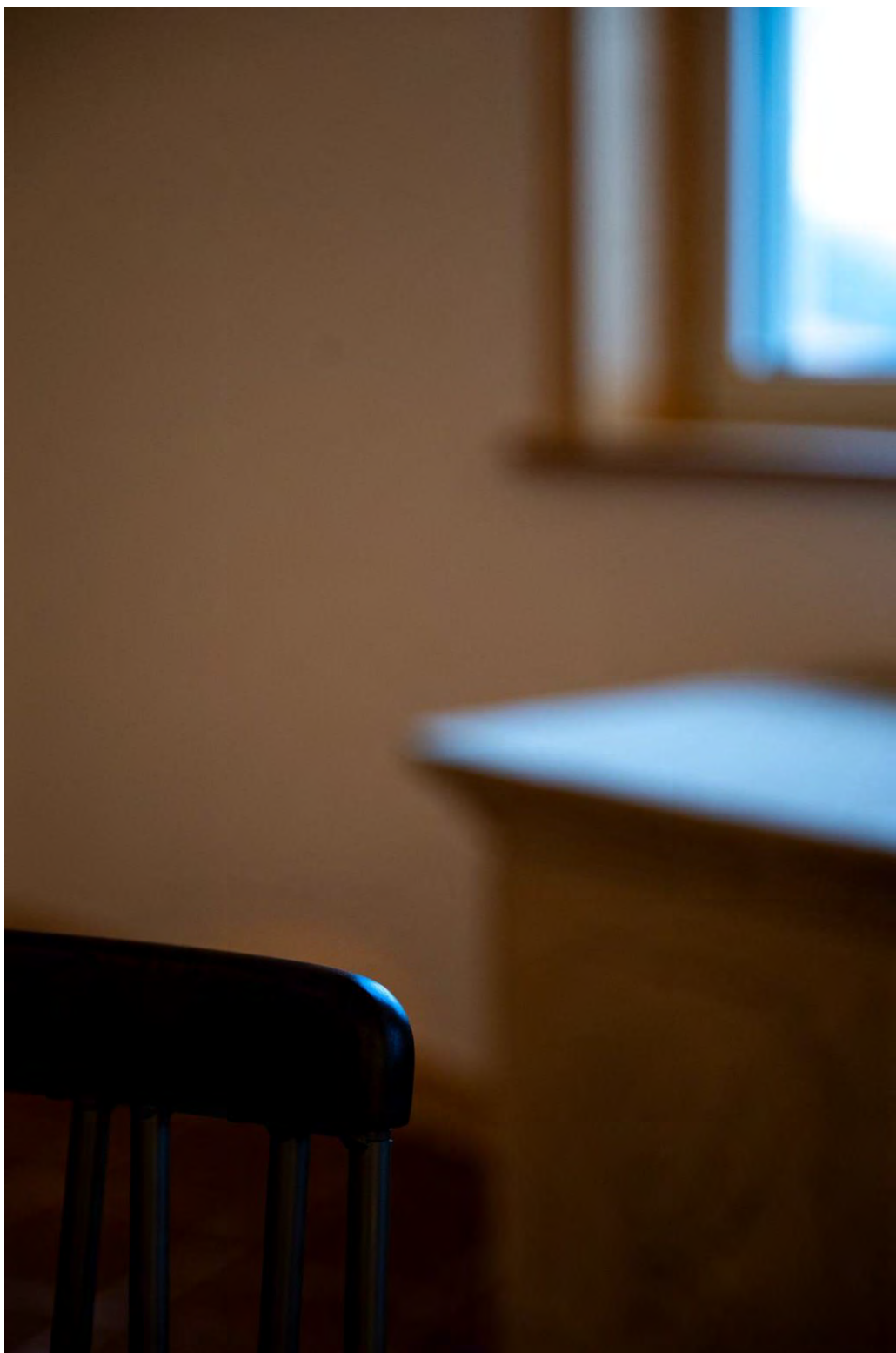
참여 섹션 01 색채가 발언하는 공간 / 02 구조적 잔존 / 07 공간과 인간의 척도

수록 작품 3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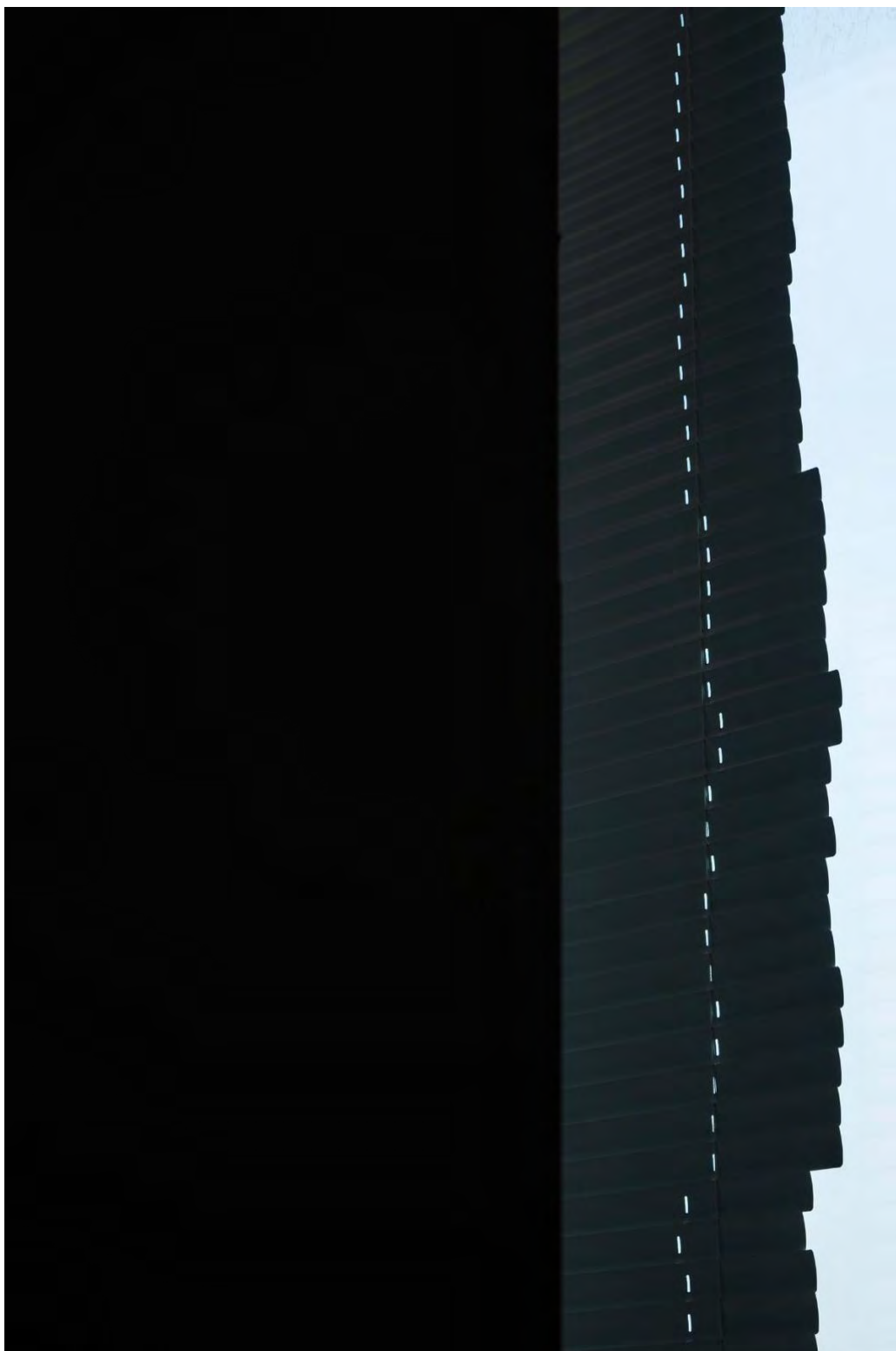
[붉은 선 이후]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아크릴] | 규격 [1118x3000 cm]



[머문 빛]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0x45 cm]



[틈의 기억]

제작연도 [2026] | 재료·방식 [피그먼트 프린트] | 규격 [30x45 cm]

07 RECORDS

영상

영 상 1 《잔존의 감각》

단채널 영상, 컬러·흑백, 사운드, 2 분 9 초, 2026

오래된 텔레비전의 노이즈에서 영상은 시작한다. 화면 위로 번지는 먹빛과 연기, 빗물이 만든 파문, 초점 밖에 머무는 사물, 비어 있는 복도와 승강장, 멈춘 그네와 빛을 머금은 거미줄이 차례로 지나간다. 구체적인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사라진 것들이 감각 속에 남긴 흔적을 따라가는 영상이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희미한 빛과 소리, 낯익은 장소의 공기, 이름을 잃은 형상은 기억의 가장자리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난다. 시작과 끝을 감싸는 텔레비전 노이즈는 '잔존'을 끊어진 신호가 아니라 아직 사라지지 않은 흔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영 상 2 《사진으로 남은 시간》

단채널 영상, 컬러·흑백, 사운드, 2 분 32 초, 2026

물살을 가르는 배와 항구의 궤적에서 시작된 화면은 빛의 굴절, 반짝이는 수면, 푸른 표면, 건축의 그림자, 들판의 해, 사막에 남은 발자국, 오래된 처마, 바닷가의 사람들, 실내를 가르는 빛으로 이어진다.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이 한 화면 안에서 만나고, 사진마다 미세한 움직임이 더해져 다음 장면으로 천천히 넘어간다. 이 영상은 회원 각자의 시선으로 포착한 장면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다. 사진은 지나간 순간을 붙잡지만, 그 안에 남은 빛과 온도, 사람의 기척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 다시 움직인다. 개별 작품의 차이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서로 다른 이미지가 "무엇이 남는가"라는 질문 아래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잔존 殘存 — 큐레이터 노트

채수창 | 한국미학사진연구회 2026 회원전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단순하면서도 쉬이 닫히지 않는 질문이었다.

무엇이 남는가?

잔존은 사라지지 않은 사물이나 흔적만 가리키지 않는다. 한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의 체온, 반복되던 몸짓, 빛이 머물다 떠난 자리, 말이 끝난 뒤의 침묵 등 눈앞에는 없지만 감각 속에서 계속 작동하는 것들까지 포함한다. 이번 전시가 남긴 대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재가 어떤 방식으로 현재를 구성하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다.

사진은 이미 지나간 순간의 자국이다. 셔터가 눌리는 순간 장면은 과거가 되지만, 사진은 그 과거를 현재의 시선 앞에 다시 세운다. 사진 속 사물과 공간은 더 이상 촬영 당시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빛과 표면, 색과 그림자의 관계는 이미지 안에 남아 관람자의 기억을 건드린다. 잔존이 그래서 사진이라는 매체의 본성에 맞닿아 있다. 이 시간적 겹침 자체를 하나의 큐레이팅 언어로 삼고자 했다.

회원들의 작품을 살피면서 잔존의 형태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오래된 장소에 새겨진 상처, 관계가 끊긴 뒤의 공백, 일상 속에서 이름 붙이지 못하고 지나쳤던 미세한 빛, 그 차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는 것이 중요했다. 주제는 작품을 같은 뜻으로 묶는 표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억들이 만나 마찰하고 공명하도록 여는 질문이어야 했다.

여러 시선을 하나의 전시로 엮는 일

큐레이팅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각 작품의 고유한 목소리를 보존하면서도 전시 전체가 하나의 호흡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작품을 주제에 맞추어 설명하는 순간, 작품이 가진 모호함과 여백이 줄어든다. 설명을 앞세우기보다 이미지가 먼저 관람자에게 도달하도록 하고, 작품 사이의 거리와 순서가 의미를 이어 주도록 구성하는 데 집중했다.

밝은 화면 뒤에 어두운 작품을 놓으면 어둠은 더 깊어진다. 구체적인 사물 다음에 추상적인 장면이 오면 관람자의 시선은 대상에서 감각으로 이동한다. 빛의 밀도, 색의 온도, 화면의 여백이 교차하도록 조율하면서 전시의 리듬을 만들고자 했다. 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작품과 작품 사이의 침묵을 담는 적극적인 공간이 되었다.

남아 있는 것이 언제나 아름답거나 안온한 것만은 아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 끊어진 관계, 도시와 장소에 새겨진 폭력 또한 잔존한다. 반대로 아주 작은 빛이나 사물의 윤곽은 삶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전시는 이 상반된 감각이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함께 머물 수 있는 장이어야 했다.

작가가 촬영 당시 의도한 의미와 내가 이미지에서 발견한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바로 그 어긋남에서 전시의 가능성이 열렸다.

큐레이터는 작품을 대신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작품과 관람자 사이에 다양한 해석이 오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드는 사람이다.

공간이 문장을 만드는 순간

전시장에서 한 작품은 독립된 이미지이면서 동시에 앞뒤 작품과 관계를 맺는 문장이 된다. 설치 높이, 작품 간 간격, 관람 동선, 조명의 방향은 모두 해석에 개입한다. 작품을 거는 일은 그래서 단순한 배치가 아니라 시선의 속도를 설계하는 일이다. 오래 머물러야 보이는 어두운 화면에는 충분한 정적을 주었다. 강한 색과 선을 가진 화면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으로 삼았다.

내 작품 세 점도 이 전시 안에서 다르게 보였다. 촬영할 때에는 실내의 빛, 블라인드의 틈, 붉은 선과 갈라진 바닥처럼 순간적으로 반응한 장면들이었다. 잔존이라는 맥락 속에서 다시 놓고 보니,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의 흔적을 가리키고 있었다. 비어 있는 의자는 누군가의 부재를, 닫힌 블라인드의 틈은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기억을, 어둠을 가르며 붉은 선과 바닥의 빛은 사라짐 이후에도 남는 긴장과 생의 감각을 드러냈다.

큐레이팅을 마치며

이번 기획은 작품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기술보다 타인의 기억을 존중하며 함께 하나의 장면을 만드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각자의 경험에서 출발한 사진들이 전시장에 모였을 때, 개인의 기억은 공동의 감각으로 변졌다. 관람자는 자신의 기억을 작품 사이에 겹쳐 놓으며 전시를 완성한다.

전시가 끝나면 작품은 벽에서 내려오고 조명도 꺼진다.

그러나 관람자가 오래 바라본 한 장면, 설명할 수 없지만 어딘가에 걸린 색, 작품 사이를 걷던 몸의 속도는 각자의 안에 다른 형태로 남을 것이다. 전시가 열어 놓은 질문도 마찬가지다. 사라진 뒤에도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CREDITS

전시 및 도록 크레딧

전시 기획	채수창
전시 큐레이팅	채수창
전시 운영	한국미학사진연구회
영상 제작	채수창
도록 기획·편집	채수창
도록 디자인	채수창
사진 제공	참여 작가 19 인
발행	한국미학사진연구회
발행일	2026. 08.20
문의	010-7150-6767 www.kapr.kr

이 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하며, 이 자료집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한국미학사진연구회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